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고등교육분야 학생 이동성 증진 방안 연구

2022년 8월

교 육 부
이 은 선

차 례

국외훈련개요	1
훈련기관 개요	2
I. 서론	4
II. 유네스코 고등교육 자격 인정 협약	6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6
2. 관련 용어 및 개념 정의	7
3. 고등교육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유네스코 협약을 중심으로	8
4. 도쿄협약과 글로벌 협약의 비교	10
5. 한국의 대응 노력 및 향후 과제	19
III. 고등교육 통합 및 학생 이동성 증진을 위한 유럽의 노력	21
1. 유럽의 고등교육 통합 노력	20
2. 성과와 한계	33
3.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40

IV. 전 세계 학생 이동성 추이	42
1. 전 세계 고등교육분야 학생 수 추이	41
2. 전 세계 고등교육분야 유학생 추이	43
3. OECD 국가와 한·중·일 유학생 현황 비교	57
V. 한·중·일 3국의 유학정책과 지역적 협력	70
1. 중국의 유학정책과 유학생 현황	70
2. 일본의 유학정책과 유학생 현황	77
3. 한국의 유학정책과 유학생 현황	87
4. 유학생 이동성 확대를 위한 지역적 협력	98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02
참고문헌	105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태국
2. 훈련기관명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본부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3. 훈련분야 : 고등교육
4. 훈련기간 : 2021.10.1.~2022.9.30.

훈련기관 개요

1. 유네스코 개요

- (명칭)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약칭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설립일) 1946년 11월 4일
- (설립목적)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
- (소재지) 프랑스 파리 (지역사무소는 54개)
- (회원국) 195개 정회원국(member states), 10개 준회원국(associate members)이 있으며, 준회원국은 총회의 투표권이 없고 이사회의 직책을 맡을 수 없는 점 외에 회원국과 같은 권한을 가짐
- (공식언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 주요 기능
 - 미래 주요 이슈들을 예견, 관련 전략·정책 발굴
 - 주요 도덕적·규범적·지적 이슈를 명확히 하여 관련 규범 창설
 - 정보·지식·선례의 수집·배포, 혁신 사업 발굴·시험
 - 회원국들의 인적·제도적 역량 개발
 - 국제협력을 위한 촉매제 역할 수행
- 주요 연구분야
 - (교육) 문맹 퇴치, 유초등교육 보급, 고등교육, 평생교육, 난민교육, ICT 활용 교육 등
 - (과학) 생물학·해양학·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구, 개발도상국의 통신설비·정보시설 지원, 언론인 육성 지원 등
 - (문화) 세계문화유산 지정, 가치있는 문화유적의 보존 및 보수 지원, 세계 각국의 독자성 있는 전통문화 보존지원 및 문헌 번역소개

- (조직) 최고의결기구인 총회(General Conference), 집행감독기구인 집행 이사회(Executive Board), 집행부서인 사무국(Secretariat)으로 구성
- ※ 각 회원국에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가 조직되어 국내외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

2. 유네스코 아태본부 개요

- (명칭)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본부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 (설립) 1961년
- (소재지) 태국 방콕
- (홈페이지) <https://bangkok.unesco.org/>
- (기능) 48개 회원국과 2개 준회원국에 전략적인 기술, 자문, 모니터링, 평가 제공하며 지역내 13개의 사무소 관할

I. 서론

해외 유학을 통해 개인은 자국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언어 능력 향상 및 다양한 국제적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향후 양질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선진국의 앞선 학문,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국의 경제성장과 학문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학생 유출로 인한 서비스 수지 적자와 두뇌유출 문제가 상존하기도 한다.

유학생 수용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에 들어온 유학생을 통해 중요한 수입을 얻게 되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국가일 수록 장기적으로 자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고학력 젊은 인력을 충원받아 국가 경제 활력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자유무역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이 각국의 후생을 증진하듯이 국경을 넘나드는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은 지식의 자유무역을 통해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국간의 경제, 과학과 기술, 문화 협력을 통해 상호간 경제성장과 역량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19로 전 세계 국경이 폐쇄되고 고등교육기관과 유학의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폐쇄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초기의 예상과 달리, 2022년 현재까지 국제 학생 이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여 각국의 유학생은 2019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급속한 전환되고 고등교육기관의 운영과 학생 이동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폐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직 학교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완전히 전환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유학이 단순한 학문과 기술의 습득만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한 글로벌 경험 증진 또한 주요 동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몇 년 동안 유학생 감소와 글로벌 학생 이동성 위축은 계속될 수 있으나, 결국은 학생 이동성 증가라는 세계적인 추세로 되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 제2장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비교 가능성과 학생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유네스코의 고등교육 자격 상호 인정 협약을 중심으로 학생 이동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분석하고, 한국이 유네스코 글로벌 협약을 수용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정비와 대응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다.

유럽은 유네스코 협약외에도 볼로냐 프로세스 등을 통해 유럽내 고등교육을 통합하려는 오랜 노력이 있었고 현재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통합되고 선진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준적인 학사-석사-박사 학위체계 도입, 유럽 학점교류 시스템, 고등교육의 질 보장 등 유럽의 다양한 노력과 경험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별도의 장으로 상세히 살펴 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유네스코 UIS와 OECD 통계를 활용해 대륙별, 국가별 유학생의 이동의 추이와 국가별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학위과정, 전공, 학생 이동성 규모 등 OECD 국가들과 한·중·일 유학생 현황을 분석·비교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한·중·일 3국 정부의 공식 통계를 활용하여 각 나라의 현대적인 유학정책과 유학생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유네스코와 OECD 통계가 서로 다른 나라들의 유학생 현황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 3국 정부의 통계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더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유학생 이동성 확대를 위한 아시아의 지역적 협력의 일환으로 한·중·일 3국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과 아세안으로 확장된 캠퍼스 아시아와 에임즈 협력 프로그램의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학생 이동성을 증진하고 유학생 유치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학생교류 프로그램 지원 등 우리나라 유학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유네스코 고등교육 자격 인정 협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국가간 학생들의 이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교육제도와 역사, 교육 시스템의 차이점이 학생 이동성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호간의 자격을 비교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교육과정이 일괄적으로 12년의 초·중등교육 과정과 4년의 고등교육 과정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나라별 학제가 다르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학점, 학습시간 등이 모두 다르다. 최근에는 원격교육의 발달, 유연한 학위과정 운영에 따른 부분 학습, 선행 학습 인정 등으로 학습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실질적인 자격을 어떻게 비교하고 상호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간의 고등교육 자격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이 없다면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다른 나라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인정받기 위한 부담을 져야 하고, 개인적 시간과 노력이 중첩되어 낭비되면서 국가간 학생의 이동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학생, 교원 이동과 교류를 통해 전 세계 지식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유네스코,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외유학을 통해 고급두뇌를 양성하여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력 신장, 한류 등 문화적 영향력 확산, 우리 고등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외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 등 고등교육 국제협력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관련 용어 및 개념 정의

고등교육 자격(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이란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것을 정부가 증명하여 발행하는 학위, 디플로마, 자격증 등을 의미한다.

자격인정 및 이전 시스템(qualification recognition and transfer system)은 개인의 학습성과(learning outcomes)를 객관적으로 평가·인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인정**(recognition)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이나 학위, 부분학습, 선행학습의 가치를 권한 있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¹⁾ 이는 개인의 형식적 학습(예: 학점) 뿐만 아니라 직업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무형식 또는 비형식학습도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선행학습 인정 또한 포괄할 수 있다. 학습의 종류와 형식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이 고등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경로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평생에 거친 다양한 학습결과를 누적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자격의 질 보장 시스템(quality assurance system)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위와 교육훈련과정의 질적 수준 보장을 통해 국가 상호간 인정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 및 기관간 상호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자격 체계**(qualification framework)가 필요하다.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QF)는 고등교육의 학위를 비교할 수 있는 학위체계와 직업자격 수준과 범위를 비교하는 직업자격체계 등을 포괄한다. 또한 여러 국가의 자격체계를 포괄하는 지역수준의 자격체계가 있는데, 유럽의 EQF(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격체계는 국가간 또는 기관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여 이동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1) UENSCO(2018), "Consultation with Member States on the Preliminary Draft of the 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3. 고등교육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유네스코 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는 국가간 학생들의 이동성 확대에 따른 국제 자격 인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7~80년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1975), 지중해(1976), 아랍(1981), 북미·유럽(1979), 아프리카(1981), 아시아·태평양(1983) 등 6개 지역의 자격인정협약 체결을 지원하였다. 이후, 국제 고등교육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북미·유럽(1997), 아시아·태평양(2011), 아프리카(2014),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2019) 4개 지역에서 개정협약을 체결하였다.

2011년 일본 도쿄에서 채택된 「고등교육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협약(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이하 도쿄협약)」은 호주(2014년), 중국(2014년), 뉴질랜드(2017년), 일본(2017년), 한국(2017년)이 비준함에 따라 2018년 2월 1일 발효되었다. 현재 비준 국가는 총 8개국으로 호주, 중국, 뉴질랜드, 일본, 한국, 교황청, 몽골(2019), 터키(2019)이다.

한편 이러한 지역협약의 체결에 발맞추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격 인정을 지원하는 국제협약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고, 2013년 제3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글로벌 협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6년부터 협약 초안문을 설계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 협약문을 회부하였다. 이후,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두 차례에 걸친 정부 간 회의에서 협약문을 수정하고,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본을 채택하였다.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이하 글로벌 협약)」은 기존의 6개 지역의 자격인정 협약을 연결하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첫 번째 전세계적 차원의 조약이다. 새로운 조약은 국제 사회에 자격 인정에 대한 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하여 고등교육 분야 학생 이동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이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하 SDGs) 중 고등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SDG 4.3은 전 세계 모든 학생이 성별, 인종, 국적, 경제력 등 배경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유네스코의 글로벌 협약은 서류가 없는 난민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유엔의 공평하게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협약은 20개국 비준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효되며, 현재 비준한 국가는 노르웨이(2020)이다.

4. 도쿄협약과 글로벌 협약의 비교

4.1 도쿄 협약의 주요 내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협약의 의의 및 목적
제1절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자격, 입학허가, 평가, 질 보증, 비전통방식, 부분 학습, 사전학습 등 주요 용어 정의
제2절	권한 있는 인정 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 인정에 관한 결정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 이 협약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제3절	자격 평가에 관한 일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자격평가와 인정에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의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 공정성 및 비차별성 보장 • 적절한 정보 제공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자격 소지자에게 있으며, 인정 신청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책임은 권한있는 인정당국에게 있음 • 인정이 보류된 경우 인정당국은 인정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향후 신청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신청자는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제4절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자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과 고등교육 접근의 일반 요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다른 당사국이 수여한 자격을 인정 •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자격은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
제5절	부분 학습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다른 당사국에서 이수한 부분 학습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부분학습 인정
제6절	고등교육 자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다른 당사국이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을 인정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제7절	난민, 실향민 및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보유한 자격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국은 난민, 실향민 등이 취득한 자격이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등교육 접근 또는 취업을 위해 자격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개발
제8절	평가·인증 및 인정과 관련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국은 자국의 고등교육 제도, 고등교육 기관, 질 보장 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정보센터 설립·운영
제9절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촉진하기 위한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 위원회' 운영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 설립 및 운영
제10절	최종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의 발효, 폐기, 유보, 개정 1983년 협약과의 관계 등

(1) 자격 평가의 일반원칙(제3절)

도쿄협약은 자격 평가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절차과 기준의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 공정성 및 비차별성**을 보장(제3.2조)하며, 회원국의 합의에 따라 협약을 개정하더라도 동 협약 제3절은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10.7조).

(2)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자격 및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제4절, 제6절)

동 협약의 당사국은 고등교육 접근의 일반 요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다른 당사국이 수여한 자격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당사국이 수여한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자격 인정 신청자가 자격 평가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인정 신청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권한 있는 인정당국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인정이 보류될 경우, 인정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신청자가 추후에 인정을 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3) 비전통적 방식으로 취득한 자격의 인정(제4.7조)

협약의 당사국은 어느 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비전통적 방식(Non-traditional modes)으로 취득한 자격을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 비전통적 방식이란 기존의 교육방식과 다른 대안적인 학습방법으로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학습을 의미한다.

(4) 부분학습의 인정(제5절)

동 협약은 인정의 범위에 고등교육 프로그램 전체를 완료·이수한 경우뿐 아니라 부분학습(Partial Studies)까지도 포함한다. 당사국간 일부 또는 전체 고등교육 프로그램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부분 학습(Partial Studies) 이수를 인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학습 인정은 비전통적 방식으로 수행된 학습에도 준용된다.

(5) 난민·실향민 등이 보유한 자격의 인정(제7절)

동 협약은 난민, 실향민 및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취득한 자격이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등교육 프로그램 접근 및 취업활동을 위한 인정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개발해야 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는 사전학습(prior learning)에 대한 인정도 포함하고 있다.

(6) 국가정보센터의 설립·운영(제8절)

또한, 협약 당사국간의 자격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를 설립·운영하여 자국의 고등교육 제도, 자격, 자격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4.2 글로벌 협약의 주요 내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협약의 의의
제1절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자격, 국경을 초월한 교육, 실질적 차이, 형식·비형식·무형식 학습, 사전 학습, 부분 인정 등 주요 용어 정의
제2절	협약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의 주요 목적(10)
제3절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일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자격을 평가받을 권리 보장 • 투명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합리적 자격 평가 • 인정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 마련 • 고등교육 자격과 관련된 일체의 사기 행위 근절 등
제4절	협약 당사국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국간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인정 • 각 당사국간 상당한 차이가 입증되지 않는 한 다른 당사국에서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 • 비전통적 학습을 통해 취득한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 • 국제공동학위 또는 국경을 초월한 교육에서 취득한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부분 학습의 인정 포함) • 상당한 차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부분인정 부여 노력 • 사전학습, 부분학습의 인정 • 서류가 없는 난민과 실향민의 자격 인정(부분 학습 및 사전학습 포함) • 국가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 제공 •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은 요청 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료로 정보 제공 •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인정당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정당국이 본 협약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 수행 • 고등교육 프로그램 입학에 위한 추가 요건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제5절	이행 구조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이행구조 • 국가이행구조의 네트워크 • 당사국 정부간 회의
제6절	최종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의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협약의 발효 • 이 협약의 당사국과 지역인정협약 당사국 및 기타 조약 당사국간의 관계 • 조약의 폐기, 수정 등

글로벌 협약은 자국 내 고등교육 질 보장 체계 구축하고, 국가 간 고등교육 제도, 기관, 프로그램, 자격에 대한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협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자격을 공평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상호 인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별 협약과 궤를 같이 한다.

글로벌 협약은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약이라는 점외에도 그 내용면에서도 지역협약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통합 노력을 담고 있다. 도쿄협약에는 없는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에 대한 인정, 국경을 넘는 교육에서 이루어진 부분학습의 인정 등이 그것이다.

비전통적 방식으로 취득한 자격 및 부분학습의 인정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자격 및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 난민·실향민 및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보유한 자격의 인정, 국가정보센터 설립·운영 등 도쿄협약과 공통된 부분은 생략하고, 이하에서는 글로벌 협약에서 추가하거나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접근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1) 자격인정의 기본원칙(제3조)

개인의 자격을 평가받을 권리 보장하며, 자격인정을 위한 평가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인 합리적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인정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동 협약의 기본원칙은 도쿄협약보다

는 자세하게 서술되었으나, 그 기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다만, 동협약에는 당사국들이 고등교육 자격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추가하고 있다.

(2)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인정(제1조)

글로벌 협약은 형식, 무형식, 비형식 학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형식 학습(Formal learning): 구조화된 학습 환경 내의 활동에서 파생된 학습으로 공식 자격을 취득하고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정하고 그러한 학습 활동을 제공하도록 승인된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습
- 비형식 학습(Non-formal learning): 정규 교육 시스템에 속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강조하는 교육 또는 훈련 프레임워크 내에서 달성되는 학습
- 무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 정규 교육 시스템 외부에서 발생하며 직장, 가족, 지역 사회 또는 여가와 관련된 일상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학습

형식학습은 국가 학력체계 안에 포함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교수과정²⁾'이라고 할 수 있다. 정규학교 교육과 직업훈련교육 등 형식 학습은 그 결과로 학력을 포함한 일정한 자격을 얻게 된다.

비형식학습은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의 중간정도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비형식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학습활동(예: 다양한 단기 강좌)으로 학습의 결과로 자격이나 인증이 따르지는 않는다.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의 구분이 '국가에 의한 학력 인증여부'라면, 비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을 구분하는 요소는 '체계화 여부'에서 찾을 수 있다.

2) 한승희(2005)

무형식 학습³⁾은 조직화된 강좌나 프로그램 없이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학습으로 직업관련 활동이나 가사, 여가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무형식학습이란 교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non-taught learning), 비체계적이고 인증과정이 배제된 자기학습 (self-learning)⁴⁾을 말한다.

글로벌 협약은 형식·비형식 학습 뿐만 아니라 측정하거나 비교하기도 쉽지 않은 무형식 학습까지 고등교육 인정 영역에 포함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사전학습, 비전통적 학습모드에서도 이를 포함하고 있다. 즉 동 협약에서는 평생 학습(Lifelong learning)을 ‘형식, 비형식 또는 무형식을 막론하고 모든 학습 활동을 지칭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사전 학습(Prior learning)을 ‘형식, 비형식 또는 무형식의 결과로 획득한 경험, 지식, 기술, 태도 및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비전통적 학습 모드(Non-traditional learning modes)은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대면 상호 작용에 주로 의존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 활동의 전달을 위한 형식, 비형식 또는 무형식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부분 인정(제5조 제5항)

글로벌 협약에서는 권한 있는 인정 기관에 의해 상당한 차이가 입증되어 완전하고 완성된 자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분 인정 (Partial Recognition)을 허용하고 있다. 당사국은 자격 인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입증되는 경우에도, 부분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비전통적 학습 방식을 통해 취득한 자격의 인정(제4~제6조)

도쿄 협약이 ‘비전통적 방식으로 취득한 자격을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글로벌 협약은 비교 가능한 질 보장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아 인정되었다는 전제하에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취득

3) Eurostat(2002)에서는 무형식학습 영역에서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자기학습을 포함하여 비교수 (non-taught)학습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를 묻고 있으며, 인쇄물, 컴퓨터, 인터넷, 교육방송, 기관방문 등을 포함한다.

4) OECD(2005)

한 자격을 전통적인 학습 모드를 통해 취득한 유사한 자격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한다.(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교육 시스템의 일부로 인정된 비전통적 학습 방식으로 제공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완료한 경우에도 전통적인 학습 방식에 의해 제공되는 부분 연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해야 한다.(제6조 제2항)

(5) 부분 학습 및 선행 학습(제6조)

도교협약은 당사국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부분 학습 이수를 인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평가한다. 글로벌 협약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 학습과 선행 학습(Prior Learning)을 인정한다.

(6) 국경을 초월한 교육과 국제공동 학위(제5조, 제6조)

둘 이상의 국가간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국제 공동 학위(international joint degree)⁵⁾ 또는 기타 공동 프로그램과 같이 국경을 초월한 교육(cross-border education)⁶⁾을 통한 고등교육 자격은 (적어도 한 국가가 이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국이나 그 구성단위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평가되며, 단일 국가에서 수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자격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제5조 제3항). 또한 국제 공동 학위 또는 국경을 초월한 교육 프로그램을 부분 완료한 경우, 단일 국가에서 취득한 부분 연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해야 한다(제6조 제3항).

5) 국경을 초월한 교육 학위의 일종으로 하나 이상의 국가에 속한 둘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통합, 조정 및 공동 제공 프로그램 완료 시 공동으로 인정 및/또는 승인 및 수여되는 단일 학위

6) 품질이 보장된 국제 공동 학위 프로그램, 국가 간 고등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람, 지식, 프로그램, 제공자 및 커리큘럼이 당사국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교육 전달 방식, 초국적 교육, 역외 교육 및 국경 없는 교육을 의미한다.

(7) 난민과 실향민의 부분 학습 및 자격 인정(제7조)

각 당사국은 난민과 실향민이 대학원을 포함한 고등교육 진학 또는 고용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부분 연구, 사전 학습 또는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이 문서 증거로 입증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 내에서 헌법, 입법 및 규제 조항에 따라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정보의 무료 제공(제9조)

각 당사국은 해당 교육 시스템에 속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격 보유자 또는 해당 기관 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국의 권한 있는 인정 당국에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5. 한국의 대응 노력 및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1983년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협약(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을 비준하였고,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을 2017년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한-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KFIT, Korea Funds-In-Trust, 2015~2023)을 통해 지역간 고등교육 이동성 증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동 협약과 관련한 연구과제 수행 등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유네스코와 한국 교육부가 공동으로 제15차 아태지역 협약 지역위원회 및 제1차 아태지역 개정협약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개정된 협약 제8조에 따라 국내외 고등교육 및 자격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보센터의 구축을 준비하였고,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KARIC, Korea Academic Recognition Information Center)를 한국의 공식 국가정보센터로 지정하였다.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는 국·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국내외 고등교육 및 자격인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자격인정 네트워크 참여 및 구축, 자격인정 관련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2007.10.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인정기관을 지정하고,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1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을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 1주기(2011.11.~2015.11.) 및 2주기(2015.11~2020.11.)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하였고, 이후 3주기(2020.11.~2025.11.)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하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학사제도 개선방안」(2016.12)을 통해 원격수업 확대를 허용하고 원격수업 운영기준 제정하였으며, 국내대학의 해

외진출 확대방안, 선행학습에 대한 학습경험인정제⁷⁾ 등을 마련하였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여 대학에서 온라인 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비전통적 학습방식을 통한 고등교육 자격 인정 등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캠퍼스 아시아 및 에임즈 (CMAPUS Asia and AIMS) 사업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한 교육과 국제공동 학위 등에도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아태지역 협약 및 그 이행에 관련해서 한국은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협약은 아태 지역 협약과 달리 더 넓은 범위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고등교육 자격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경우, 비형식 교육에 대한 인정 절차나 사례도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한국에서 무형식 교육까지 인정의 영역으로 포괄하기에는 아직 여러 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 선행학습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되었으나, 선행학습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표준화된 절차 마련이 필요하며, 글로벌 협약에서 도입한 부분인정제도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문서로 입증할 자격요건이 없는 난민 등을 위한 자격 인정 평가 프로세스의 개발도 필요하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유네스코가 유엔난민기구(UNHCR), 노르웨이 인정기관인 NOKUT 등과 함께 난민 및 취약한 이민자를 위한 자격여권(qualifications passport) 제도를 개발하고, 난민 자격 인정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므로, 프로젝트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낮은 출생률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에 걸맞은 고등교육 경쟁력의 확보와 유학생 유치 확대 등 교육 한류를 위해서 유네스코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학생이동성 증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고등교육 제도와 시스템은 유네스코의 글로벌 협약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기에는 많은 준비와 정비가 필요하다.

7) 국내외 전문직업인 등이 타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대학(원) 입학 이전에 쌓은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2017.11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Ⅲ. 고등교육 통합 및 학생 이동성 증진을 위한 유럽의 노력

1. 유럽의 고등교육 통합 노력

유럽은 역사, 종교, 문화적 동질성을 기초로 꾸준히 경제적·정치적 통합 노력을 한 결과 1952년 유럽경제공동체(EEC), 1967년 유럽공동체(EC), 관세동맹을 거쳐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1993년 유럽 단일시장을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유럽연합(EU)을 출범시켰다.

유럽연합은 거대한 단일 시장을 출범하여, 그 안에서 사람,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무역, 농업, 어업 및 지역 개발에 대한 공통 정책을 취하고 있다.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경에서의 여권통제 철폐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 권역 내 학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유럽 어디에서나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고용의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다양한 교육체계, 수학 기간, 학위의 명칭으로 인해 고등교육 분야나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교육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럽은 권역내 고등교육 상호인정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현재 가장 통합되고 선진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의 사례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유럽의 선진 사례는 여러 가지 점에 고등교육 통합부분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1.1 유럽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

유럽의 고등교육 통합 노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협약이 주로 7~80년대 집중적으로 체결되었으나, 유럽에서는 이미 50년대에 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 1953년, 「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졸업증서의 동등성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Equivalence of Diplomas leading to Admission to Universities)」 과 그 의정서(Protocol, 1964)
- 1956년, 「대학 수학 연한의 동등성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Equivalence of Periods of University Study)」
- 1959년, 「대학 자격에 관한 학문적 인정에 관한 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he Academic Recognition of University Qualifications)」
- 1976년, 「지중해와 국경을 접하는 아랍 및 유럽 국가 고등교육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과 관련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the Arab and European States bordering on the Mediterranean)」
- 1979년, 유네스코와의 협력하에 채택된 「유럽지역국가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States belonging to the Europe Region)」
- 1990년, 「대학 수학연한의 일반적 동등성에 관한 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he General Equivalence of Periods of University Study) 」

1997년 11월 리스본에서 채택되고 1999년 발효된 「유럽지역국가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States belonging to the Europe Region, 이하 리스본 협약)」은 「지중해와 국경을 접하는 아랍 및 유럽 국가 고등교육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과 관련된 국제협약(1976)」을 제외하고는 위의 협약들을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 리스본 협약의 주요 내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의 의의 및 목적
제1절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자격, 입학, 평가, 질 보증, 인정, 일반적 요건과 구체적 요건 등 주요 용어 정의
제2절	당국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 인정에 관한 결정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 이 협약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제3절	자격 평가에 관한 일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자격평가와 인정에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의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을 보장하며, 지원자의 성별·인종·종교·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됨 • 충분한 정보 제공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자격 소지자에게 있으며, 인정 신청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책임은 평가수행 기관에게 있음 • 인정이 보류된 경우 인정당국은 인정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향후 신청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신청자는 항소할 수 있음
제4절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자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과 고등교육 접근의 일반적 요건에 상당한 차이가 없는 한, 다른 당사국이 수여한 자격을 인정
제5절	수학기간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틀 안에서 마친 수학기간을 인정. 다른 당사국과 인정을 구하는 당사국간의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인정을 구하는 당사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수료를 목적으로 한 수학기간으로 인정
제6절	고등교육 자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상당한 차이가 없는 한, 다른 당사국이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을 인정
제7절	난민, 실향민 및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보유한 자격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난민, 실향민 등이 취득한 자격이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등교육 접근 또는 취업을 위해 자격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개발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제8절	고등교육기관과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자국의 고등교육 기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질의 수준과 평가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제9절	자격인정문제에 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자격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정보 센터를 설립하여 적절하고 명확하며 최신의 정보를 제공
제10절	이행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촉진하기 위한 '유럽지역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협약 위원회' 운영 • 1994년 설립된 유럽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ENIC 네트워크) 운영
제11절	최종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의 발효, 폐기, 유보, 개정, • 1953년, 1956년, 1959년, 1976년, 1979년, 1990년 협약과의 관계 등

리스본 협약은 유럽의회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2011년 도쿄 협약과 그 내용이 비슷하다. 즉 상당한 차이가 없는 한, 협약의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서 부여한 고등교육 자격을 인정해야 하며 그 과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다만 1997년 채택된 리스본 협약은 비전통적 방식(Non-traditional modes)으로 취득한 자격이나 부분 학습(Partial Studies), 사전학습(prior learning) 인정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

동 협약의 위원회와 유럽정보센터 네트워크(ENIC; European Network of Information Centres on mobility and recognition)⁸⁾ 두 기관이 동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촉진한다. 위원회는 협약의 적용을 촉진하고 그 이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ENIC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ENIC는 권한 있는 당사국의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8) 유럽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ENIC)는 1994년 6월 9일에 개최된 유럽의회 장관위원회와 1994년 6월 18일에 개최된 유네스코 유럽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동 및 인정에 관한 국가정보 센터간의 네트워크이다.

1.2 소르본 공동 선언

아·태지역내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논의가 주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발전이 더딘 데 반해, 유럽에서는 유네스코 협약(리스본 협약) 외 독자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논의를 급진전시켰다. 리스본 협약이 체결된 다음 해인 1998년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 개교 8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교육부 장관들은 유럽 고등교육체계의 조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르본 공동선언(Sorbonne Joint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 이해하기 쉽고 비교 가능한 유럽 고등교육 시스템을 통해 국제적 인지도와 매력도를 높인다.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성된 두 주요 단계(two main cycles)가 국제적 비교와 동등성을 위해 인정되어야 한다.
- ECTS와 같은 학점제와 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은 그들의 직업생활 중 언제라도 유럽의 다른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 학생은 모국 이외의 대학에서 최소 한 학기를 보내도록 권장하며, 유럽 내 학생과 교사의 이동성을 지원한다.
- 리스본 협약을 기반으로, 유럽 학위체계구조의 점진적 조화를 위해 정부는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외부 인지도를 높이고 학생의 이동성과 고용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 준거틀(common frame of reference)을 장려하며, 상호 공동의 이익을 위해 유럽고등교육권역(European area of higher education)을 만드는 노력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리스본 조약이 각국 교육체계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약 당사국간의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해 논의했던데 비해, 소르본 선언은 유럽 학위체계의 조화(harmonisation)와 유럽고등교육권역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1.3 볼로냐 선언 및 볼로냐 프로세스

소르본 공동선언은 다음 해인 1999년 6월 이탈리아의 볼로냐대학에서 유럽 29개국 교육부장관들이 합의한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으로 발전하였다. 볼로냐 선언은 유럽고등교육권역(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이하 EHEA)을 세우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 고등교육 체계를 진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6개 목표를 2010년까지 달성할 것을 천명하였다.

- 유럽 시민의 고용 가능성과 유럽 고등교육 시스템의 국제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학위 보충서(Diploma Supplement)⁹⁾ 시행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비교 가능한 학위 시스템을 채택한다.
- 학부와 대학원의 두 가지 주요 단계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 광범위한 학생 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해 ECTS 시스템과 같은 학점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대학에서 인정하는 경우, 학점은 평생학습을 포함하여 고등교육이 아닌 상황에서도 취득할 수 있다.
- 학생, 교사, 연구원 및 행정 직원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그 이동성을 증진한다.
- 비교 가능한 기준과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질 보장 분야 유럽의 협력을 촉진한다.
- 유럽 고등교육 분야 교과과정 개발, 기관 간 협력, 이동성 증진 계획 및 통합 연구, 훈련 및 연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유럽 고등교육을 통합(consolidate the European area of higher education)할 것을 선언하고, 매 2년마다 만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결정했다.

볼로냐 선언은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국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으며, 참여와 협력은 자발적이다. 볼로냐 선언은 1년전 발표된 소르본 공동선언과는 그 기본원칙과 내용이 유사하나, 그 내용이

9) 학위 보충서란 학위증(학사, 석사 학위 등)에 첨부하는 문서로, 취득학위와 자격의 내용, 수여기관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담고 있어 국가마다 서로 다른 학위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보다 구체화되었고 목표의 달성연한(2010년 이내)이 명시되었으며, 후속조치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더 발전적이다.

또한 불과 2년전에 체결된 97년 리스본 협약에 비해서는 더욱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스본 협약이 유럽국가 내의 다양한 수학기간, 학위 등을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던데 반해, 볼로냐 선언은 오랜 역사동안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대학의 학위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유럽 고등교육을 통합하고 하나의 권역을 만들 것을 천명한 것이다.

볼로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2010년까지 비교 가능한 고등교육 시스템을 가진 유럽 고등교육 권역을 구축하여 교육 및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표준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유럽 국가들의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지원하는 집행구조로 볼로냐 후속 조치 그룹(Bologna Follow-Up Group, BFUG)이 만들어졌는데, 그 회원자격은 EHEA의 회원자격¹⁰⁾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볼로냐 프로세스에는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도 참여하면서, 회원국의 수는 현재 48개국¹¹⁾과 EU집행위원회로 늘었다. 또한 의결권은 없지만 기타 중요한 8개의 이해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자문회원¹²⁾이 있다. 볼로냐 후속조치 그룹은 매 2~3년마다 장관 회의(Ministerial Conferences)¹³⁾를 개최한다. 동 장관 회의에서는 EHEA 내 회원국에서 이루어진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추

10) EHEA의 회원이 되려는 국가는 유럽 문화 협약(European Cultural Convention)의 당사국이어야 하며 자체 고등 교육 시스템에서 볼로냐 프로세스의 목표를 추구하고 이행할 의지를 선언해야 한다.

11)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Flemish 및 Walloon 커뮤니티),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에스파냐,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2001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리히텐슈타인, 터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03년: 알바니아, 안도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바티칸 시티

2005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

2007년: 몬테네그로

2010년: 카자흐스탄

2015년: 벨라루스

12)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CoE), 유네스코, 유럽대학협회(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EUA), 유럽고등교육기관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EURASHE), 유럽학생연합(European Students' Union, ESU), 유럽고등교육품질보증협회(European Association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ENQA), 국제교육(Education International, EI) 및 비즈니스 유럽(BUSINESS EUROPE) 등 8개 기관이다.

13) 프라하 (2001), 베를린 (2003), 베르겐 (2005), 런던 (2007), 루벤 (2009), 부다페스트-비엔나 (2010), 부카레스트 (2012), 예 레반 (2015) 및 파리 (2018)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가 개발 및 약속 등을 포함한 새로운 조치를 결정하며, EHEA 회원 자격을 위한 신규 신청과 절차에 대한 기타 주요 변경 사항을 결정한다.

볼로냐 선언과 이후 장관회의를 거쳐 발전된 볼로냐 프로세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적인 학사-석사-박사 학위체계 도입

먼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학위체계(easily readable and comparable degrees)를 도입하여 동질적인 고등교육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유럽 대학들은 학사와 석사과정을 통합해 배우는 마스터 과정을 운영해왔으나, 볼로냐 프로세스는 이를 학사-석사-박사로 이어지는 미국식 제도로 학제를 개편했다. 볼로냐 선언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의 2단계 학위제도를 채택하였고, 이후 2003년 베를린 회의에서 학위제도를 박사학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사 3년, 석사 2년, 박사 3년의 3-2-3 시스템을 유럽의 공통 표준모델로 도입한 것이다.

유럽 대학의 역사는 유구하다. 최초의 대학으로 알려진 볼로냐대학은 1088년 법률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파리대학(1150년 설립)과 옥스퍼드 대학(1208년 설립)은 신학 중심의 대학이었다. 1810년에는 근대대학의 전형이며 현대대학의 모델이라 평가받는 훔볼트 대학이 설립되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유럽 대학은 국가마다 대학의 종류와 학위가 매우 복잡, 다양하다. 독일은 200여년 동안 마기스터(Magister)나 디플롬(Diplom)으로 대표되는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론 위주의 학문분야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마기스터 과정을, 실습이 요구되는 이공계 분야의 경우 디플롬 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받았다.

프랑스의 경우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더 복잡한 고등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평준화된 국립대학, 소수의 엘리트 교육을 위한 특수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 상경계 학교, 엔지니어 학교, 예술학교와 같은 특수대학, 기타 국·공·사립 전문학교 등 3,500여개의 고등교육기

관이 있다. 각 학교별로 수학기간도 다양하고, 학위 또한 국가에서 수여하는 학위, 해당 기관명으로 발급하는 학위, 협회에서 인증하는 학위 등 다양하다.

이러한 학위체계가 영미 학위체계인 학사와 석사 학위 과정으로 대체되었다. 단지 학위의 명칭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수학 기간과 필요 학점 등 모든 부분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새로운 학위체계의 철폐를 주장하는 학생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2) 표준적인 학점교류시스템

유럽 학점교류시스템(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이하 ECTS)과 같은 표준적인 학점 제도를 도입하여 자유로운 학술교류를 보장한다. ECTS는 1989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이동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처음 개발된 학점 이전 및 축적을 위한 시스템이다. 즉 학생의 이동을 쉽게 하려고, 각 국가 고등교육의 학습 성과와 학습량을 비교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학습성과(learning outcomes)는 학생이 학습 과정을 완료했을 때, 알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진술서(statements)이다. 학습성과의 성취도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절차를 거쳐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성과는 EQF나 NQF에서 개인의 자격수준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¹⁴⁾.

학습량(workload)은 개인이 공식 학습 환경에서 정의된 학습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강의, 세미나, 프로젝트, 실습·실기, 실무 연수 및 개별 학습과 같은 모든 학습 활동을 완료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간의 추정치이다. 한 학년도(연간 36~40주)의 풀타임 학습량인 60학점은 1년에 1,500~1,800시간으로 1학점(1 ECTS)은 25~30시간의 작업에 해당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학습량을 나타내며 개별 학생에 대해 학습 결과를 달성하는 실제 시간이 다를 수 있다¹⁵⁾.

14) ECTS User's Guide 2015

15) ECTS User's Guide 2015

학사학위는 180 또는 240학점으로 구성되며, 석사학위는 최소 60학점 이상, 90 또는 120학점으로 구성된다. ECTS는 지역 및 외국의 모든 학생의 학습 프로그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이동성과 학문적 인정을 쉽게 한다. 2015년, ECTS 사용자 가이드가 개발·보급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가이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의 모든 원칙을 준수하는 국가는 '17년 현재 48개국 중 16개국이며, 20개 국가는 원칙의 일부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럽은 볼로냐 프로세스 이전부터 국가간 학위인정에 관한 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었다. 1994년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학위인정 및 이동성을 위한 유럽정보센터 네트워크(The European Network of Information Centres on mobility and recognition, 이하 ENIC)를 구축하였다. 유럽의 각국은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 학위인정 정보센터(National Academic Recognition Information Centres, 이하 NARIC)를 설립·운영하고 있었다¹⁶⁾. ENIC-NARIC 시스템은 외국에서 취득한 고등교육 학위와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학생과 근로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3) 고등교육의 질 보장

대학 교육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국가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통합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대학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하고 그 질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증제도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교육의 질을 인증받은 나라의 대학들끼리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상호간의 졸업장 인정해주는 것이다.

유럽고등교육질보장협의회(European Association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이하 ENQA)는 유럽학생조합, 유럽고등교육기관협의회, 유럽대학협의회 등과 함께 유럽고등교육권역의 질 보장 기준 및 가이드라인(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이하 ESG)을 2005

16) 이탈리아는 1984년부터 CIMEA(Centro di Informazione sulla Mobilità e le Equivalenze Accademiche)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1997년부터 UK NARIC(National Academic Recognition Information Centre)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년 개발하고, 2015년 이를 업데이트하였다.

ESG는 2015년 EHEA 장관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내부 및 외부 품질 보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ESG는 볼로냐 프로세스의 주된 이행과제 중 하나인 '질 보장'을 위한 것으로, 고등교육 시스템 간의 신뢰, 이동성 및 인식 향상의 기반을 제공한다. ESG는 (1) (고등교육 기관 자체) 내부 질 보장, (2) (외부 전문가 그룹에 의한) 외부 질 보장, (3) 질 보장 기관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ESG는 장소나 교육방식(mode of delivery)에 관계없이 모든 고등교육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자격체계, ECTS, 디플로마 보조자료를 광범위하게 포괄하여, 유럽고등교육권역 내 고등교육의 투명성과 상호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¹⁷⁾. ENQA 회원 자격은 ESG 준수를 입증하는 질 보장 기관에만 열려 있다는 점에서 ESG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4 EU 집행위원회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의 교육부장관들의 합의에 의해 시작되었다. 볼로냐 선언 참여국은 EU 회원국이 아닌 유럽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참여국은 EU 집행위원회의 자국 교육정책에 대한 간섭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볼로냐 프로세스의 공식회의 및 연구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고, 2005년 베르겐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식 회원자격을 부여받았다. 그 뒤 EU 집행위원회는 볼로냐 프로세스에서 적극적인 행위자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고등교육의 협력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EU 집행위원회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이동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이다. 1987년 도입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유럽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국경을 넘어 일정기간(3~12월) 동안 다른 유럽국가로 이동하여 공부하는 것을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17) ENQA(2015),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ESG)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되었으며, 2014년에는 Erasmus+라고 하는 EU의 교육, 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프로그램(EU's programme for education, training, youth and sport)으로 대체되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Erasmus+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기술을 개발하고 고용 전망을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2014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약 4백만 명이 Erasmus+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직업 훈련 및 교육 학생 65만 명, 강사 및 교직원 80만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27개 EU 회원국 전체와 영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및 터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2027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예산을 300억 유로로 두 배로 늘리고 1,200만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18)19).}

EU 집행위원회는 그 외 회원국간의 교육정책 및 교육체계에 대해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리디체(EURYDICE) 교육정보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국간 교육협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2009년 채택하고 2011년 보완한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유럽 협력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ET 2020)는 유럽연합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해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7개의 벤치마크 지표를 설정하였다^{20).} 그중 학생 이동성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EU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최소 20% 이상은 해외에서 고등교육 관련 연구 또는 훈련(직장 배치 포함)²¹⁾을 해야 한다.

18) 2019년 6월, 유럽 의회는 2021-2027년 프로그램 예산을 승인했다.

19) <https://erasmus-plus.ec.europa.eu/>

20) https://ec.europa.eu/education/policies/european-policy-cooperation/et2020-framework_en

21) 학점으로는 최소 15 ECTS를 이수하거나 또는 최소 3개월 지속 기준

2. 성과와 한계

2.1 학생 이동성 증진

이러한 유럽의 고등교육 표준화와 질 보장,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위한 노력은 유럽대학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미국의 거대 대학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 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의 성과는 학생 이동성의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럽내 학생 이동성의 증가가 순전히 볼로냐 프로세스의 성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표준화된 학위체계와 표준적인 학점인정교류시스템은 유학을 준비하는데 여러 장애물을 제거하여 학생 이동을 쉽게 하였으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같은 직접적인 학생교류 프로그램 또한 학생 이동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UIS(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²²⁾의 유학생 통계를 보면, 미국은 여전히 유학생을 유치하는 나라 중 부동의 1위이며, 전 세계 유학생 수의 증가와 함께 미국의 유학생 유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전 세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비율은 2000년 23%에서 2010년 16%, 2015년 14%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²³⁾.

볼로냐 프로세스가 유럽의 국가들이 하나로 모여 미국의 거대한 고등교육 시장에 대항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북미와 유럽의 지역구도로 봤을 때는 유럽은 그 규모면에서는 북미를 압도하게 되었다. 즉 2019년 지역별로 유럽(EU 및 비EU 포함)은 세계에서 가장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지역으로 유학생 230만명(38%)을 유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147만명(24%), 북미 125만명(21%) 순이다. 유학생을 보내는 지역으로는 아시아가 1위로 314만명(59%)의 유학생을 외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유럽은 그 다음으로 100만명(19%)을 유학 보내고 있다.

유럽은 학생의 국제적 이동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며 지

22) <http://uis.unesco.org/>에서 각종 통계자료를 엑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국가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학생 통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23) 이러한 수치는 통계작성 기관마다 다르다. 하지만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IIE Open Doors) 등과 같은 다른 기관의 자료에서도 미국의 점유율 하락 추세는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역 내 이동성 또한 활발하다. 유럽 유학생의 86%가 유럽의 다른 나라로 유학을 하고, 7%는 미국을 선택하고, 2%는 캐나다, 1%는 호주를 선택한다. 또한, 유럽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의 50%가 유럽 출신이며, 중국이 9%, 인도 3%, 모로코 2%, 미국 2%, 기타 국가 출신이 34%이다.

EU의 28개 회원국은 대학 학비를 국비 지원하고 있으며, 상징적인 금액의 학비만을 받고 있다. 볼로냐 프로세스를 따르는 EHEA 국가에서 다른 EHEA 국가로 유학하는 학생 또한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유학생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같은 EHEA 국가로 유학을 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또한, 뒤 3장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모국과 경제적·문화적 관계가 깊은 이웃나라로 유학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아 권역 내 이동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구소련연방에 속했던 국가들에서는 다수가 러시아 유학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Eurostat(2010)에 의하면, 볼로냐 프로세스를 지지한 첫 32개국의 학생 이동성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들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은 고등교육 분야 총 학생수의 5.4%에 해당했으나, 2015년 그 수는 평균 15%에 달하게 되었다²⁴⁾. 물론 이 수는 EHEA 국가 외부에서 오는 유학생을 포함하는 수치이다.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한 학위 체계의 표준화와 학점인정 등 학생 이동 장애물 제거는 권역 내 학생 이동성 증진 뿐 아니라 권역 외 학생을 유치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2.2 학위체계의 표준화

볼로냐 프로세스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같은 이동성 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학생 이동성 증진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유럽 고등교육 학위체계 표준화와 고등교육의 질 측면에서는 아직 평가가 엇갈린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4/15학년도 겨울학기의 경우 전체 교육과정의 88.2%에서 학사-석사 2단계 학위과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전문대학에서의 전환율은 100%를 달성하였다. 학

24) Teichler, U. (2012)

업 기간 또한 줄어들었는데, 1998년 디플롬 학위과정의 평균 수학기간은 13.4학기였으나 2012년 학사-석사학위를 이수하기까지 학생들은 평균 10.8학기를 공부했다²⁵⁾

그러나 모든 EHEA 가입국들이 독일과 같이 학위체계 전환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Martina Kroher et al. (2021)는 불로냐 선언 이후 20여 년이 지난 후 사회학 및 경제학 논문의 양적 분석을 통해 불로냐 프로세스 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음 표를 보면, 불로냐 프로세스의 표준적인 학위체계는 3+2 시스템이나, 이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EHEA에 가입하여 개혁을 시행한 국가 중 다수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학위체계를 운영중인 것을 볼 수 있다. 권역내 표준적인 학위체계를 도입하여 이해 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는 불로냐 프로세스의 원칙지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 EHEA 회원국들의 2단계 학위체계 이행 현황

국가	EHEA 가입시기	주 도입시기	개혁전 시스템	개혁후 시스템*
알바니아	2003	2005/6	two cycle	3+(1.5-2)년
안도라	2003	~2004+	single cycle	3+2년
아르메니아	2005	2004/05-2010	two cycle	4+2년
오스트리아	1999	2000/01+	single cycle	3+2년
아제르바이잔	2005	N/A	single cycle	4+2년
벨라루스	2015	N/A	N/A	N/A
벨기에(Flemish)	1999	2004/05-2007/08	single cycle	3+(1-2)년
벨기에(French)	1999	2004/05-2007/08	single cycle	3+2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2003	2003/04-2010	two cycle	(3-4)+(1-2)년
불가리아	1999	N-M	two cycle	4+1년

25) 이진희(2014)

국가	EHEA 가입시기	주 도입시기	개혁전 시스템	개혁후 시스템*
크로아티아	2001	2005/6	single cycle	3+2년
사이프러스	2001	N-M	two cycle	4+1년
체코	1999	~2000-2004/05	two cycle	3+2년
덴마크	1999	[1993]-2003	two cycle	(3-3.5)+2년
에스토니아	1999	2002/3	single cycle	3+2년
핀란드	1999	2005-2008	single cycle	(3-4)+2년
프랑스	1999	2006-2010	two cycle	3+2년
조지아	2005	N-M	two cycle	4+2년
독일	1999	~2002-2010	single cycle	3+2년
그리스	1999	N-M	two cycle	4+(1.5-2)년
교황청	2003	N-M	two cycle	3+2년
헝가리	1999	2005-2006	single cycle	(3-3.5)+2년
아이슬란드	1999	N-M	two cycle	3+2년
아일랜드	1999	N-M	two cycle	(3-4)+1.5년
이탈리아	1999	Feb-01	single cycle	3+2년
카자흐스탄	2010	[2001]	N/A	4+(1-2)년
라트비아	1999	[~1990s]-2001	two cycle	(3-4)+(1-2)년
리히텐슈타인	1999	N/A	single cycle	3+2년
리투아니아	1999	[1993]-2000	two cycle	(3-4)+2년
룩셈부르크	1999	2004+	single cycle	3+(1-2)년
몰타	1999	N/A	two cycle	3+(1-2)년
몰도바	2005	2005/6	two cycle	(3-4)+(1.5-2)년
몬테네그로	2003	N/A	two cycle	3+2년

국가	EHEA 가입시기	주 도입시기	개혁전 시스템	개혁후 시스템*
네덜란드	1999	2002/3	single cycle	(3-4)+(1-2)년
북마케도니아	2003	2004/5	single cycle	4+1년
노르웨이	1999	2002/03- 2003/2004	two cycle	3+2년
폴란드	1999	2006/07-2007	two cycle	(3-3.5)+2년
포르투갈	1999	2006/07-2008/09	single cycle	3+2년
루마니아	1999	2005/06-2008	single cycle	(3-4)+2년
러시아 연방	2003	~2009/10-2010/11	two cycle	4+2년
산마리노	2020	N/A	N/A	N/A
세르비아	2003	2006/7	two cycle	(3-4)+1년
슬로바키아	1999	N-M	two cycle	3+2년
슬로베니아	1999	2004/05-2009/10	two cycle	3+2년
스페인	1999	~2005/06-2008/09	two cycle	4+1년
스웨덴	1999	2007	single cycle	3+2년
스위스	1999	2004/05-2010	single cycle	3+(1.5-2)년
터키	2001	N-M	two cycle	4+2년
우크라이나	2005	N-M	two cycle	4+1.5년
영국	1999	N-M	two cycle	N/A
영국(스코틀랜드)	1999	N-M	two cycle	4+1.5년

주석: ~ 대략, + 달성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행, N/A 자료 없음, N-M 변화가 없거나 약간의 변화만 있음, [] 볼로냐 프로세스 이전부터 시행

* 개혁후 시스템이란 그 나라의 모든 고등교육의 프로그램의 30% 이상 시스템을 의미하며, 2번째 사이클의 1년은 60~75 학점(ECTS)으로 구성된다.

출처: Martina Kroher et al. (2021)

EHEA 가입국들의 다양한 학위체계가 불로냐 프로세스의 원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혁을 충실히 수행한 국가 내에서는 영미식 학위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3+2의 2단계 학위제도의 도입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국가의 교육재정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앞당기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유리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불로냐 프로세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그 고등교육체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였다. 학위체계의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학업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수업방식과 평가방식 또한 변했다. 유럽학점교류제(ECTS)의 도입과 함께 모듈형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유사한 주제를 묶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교과과정으로 구성되는 모듈이 교육프로그램의 핵심 단위가 된다. 학생들은 과정 내에서 또는 모듈과정을 마치며 시험을 보고 학점을 받게 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학점을 부여하면서 성적을 함께 평가할 것과 성적평가에서 절대평가를 지양하고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한 성적을 표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적증명서 자체가 없었던 독일 대학교육을 흔드는 큰 변화로, 점수로 대학 교육 결과를 평가한다는 발상은 독일 지식계에 반발을 일으켰다.

이러한 개혁은 성적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이동성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독일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및 시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학문을 깊이 있게 추구하는 대신 암기 위주의 학습으로 학점을 추구하는 태도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이다. 자유를 바탕으로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육의 이상과 학문의 개성이 훼손되며, 학생들은 학문적 소양을 충분히 익히지도 못한채 졸업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다.

독일에서는 3년의 학사과정을 마치고 다수가 2년 석사과정에 진학한다. 일반대학교에서 학사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77%가, 전문대학의 경우 53%의 학생이 석사과정에 등록한다²⁶⁾고 한다. 이는 학사학위만으로는 사회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Martina Kroher et al. (2021)는 학사학위 졸업생은 석사학위 또는 전통적 학위를 가진 졸업생보다 노동 시장 수익이 더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Alesi 외 (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사학위자의 소득은 마기스터나 디플롬, 석사학위자의 소득보다 평균 2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규모나 급여에서 학사학위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희(2014)는 3년제의 축약된 학사학위는 사회진출을 위한 학위가 아닌 석사학위과정에 진학하기 위한 자격에 불과한 기초학위 개념이 되었으며,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당초의 불로냐 프로세스의 기본 취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6) 이진희(2014)

3.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유럽은 그리스·로마 문명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동질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서로 활발히 교류한 오랜 역사가 있으며, 1950년대부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 결과 1994년 EU를 구성하여 하나의 정치·경제 공동체로 활동하며 그 안에서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위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인종, 언어, 종교, 사회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아·태지역은 세계 주요 종교의 탄생지이며, 3,500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는 수백 인종의 47억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 안에는 가장 규모가 큰 국가부터 가장 작은 국가, 저개발국에서 선진국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교류는 제한적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는 교류하였지만, 남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과의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고 할 만큼 그 관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넓고 다양한 지역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유럽과 같이 상호 밀접하게 교류하며 공동의 행동을 추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체계의 조화에서는 유럽보다 더 유리한 시작점에 있을 수도 있다. 아·태지역의 현대적인 고등교육 체계는 영국의 식민지(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 경험이나 2차 대전 이후 해방과 건국 과정을 거치면서 영미식 학제를 도입하여 오히려 더 동질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유럽은 서구형 대학의 탄생지로 긴 역사 속에서 각 나라의 정치·경제·문화·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발전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은 다양한 수업연한의 학위과정과 교육수준, 복잡한 고등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유럽과 같은 혁명적인 학위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학위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세부적인 사항에서 국제 표준과 이해 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자격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6조 자격체제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3년 국가역량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였다. 2014년 국가역량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²⁷⁾을 추진한 뒤, 공청회 등을 거친 뒤 2019년 2월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의 기본틀이 고시되었다. KQF는 EQF와 동일하게 8수준으로 설계되었으며, 고등교육 학위체계 또한 유럽과 동일하게 5~8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어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학생의 이동성 측면에서 그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럽 학점 교류시스템(ECTS)과 같이 학습성과(learning outcomes)와 학습량(workload)을 고려한 표준적인 학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점은 실제 강의를 듣는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제1항에 의해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유럽 학점의 학습량은 강의뿐만 아니라 세미나, 프로젝트, 실습·실기, 실무 연수 및 학생의 개별 학습 등 모든 학습 활동을 완료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 또한 강의를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마찬가지로 세미나 참석, 프로젝트 준비 및 발표, 보고서(숙제) 제출, 개별 학습 등을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학점체계의 개편이나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표준적인 보조자료의 개발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²⁷⁾ 교육부는 미용(헤어), 자동차(정비·관리), 관광(숙박) 분야, 고용부는 IT(소프트웨어) 분야 등 4개 분야 시범사업 추진

IV. 전 세계 학생 이동성 추이

1. 전 세계 고등교육분야 학생 수 추이

지난 10년간 전 세계 고등교육분야 학생 수는 43% 증가하여 2017년 2.2억명에 도달하였으며, 이들중 절반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해있다. 유네스코는 향후 10년간 이 숫자는 39% 증가하여 2027년에는 3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4.1> 전 세계 고등교육분야 학생 수 증가 추이

(단위: 백만명)

지역	연도	2007년		2017년		2027년(추정)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아시아-태평양		64.4	41.9%	112.2	50.4%	169.7	55.0%
북미		19.2	12.5%	20.7	9.3%	20.4	6.6%
중남미		18	11.7%	27	12.1%	36.6	11.9%
유럽연합		18.8	12.2%	19.8	8.9%	20.5	6.6%
기타 유럽		18.4	12.0%	18.4	8.3%	19.3	6.3%
중동과 북아프리카		10.3	6.7%	15.2	6.8%	20.3	6.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7	3.1%	9.1	4.1%	22	7.1%
합계		153.8	100%	222.4	100%	308.8	100%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고등교육 분야 학생인구의 대부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2007년 42%에서 2027년에는 5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럽과 북미는 학생의 절대 숫자는 증가하나 그 비중은 각각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2. 전 세계 고등교육분야 유학생 추이

2.1 대륙별 유학생 이동 현황

학업을 위해 국경을 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은 수학하는 교육기관에 따라 초·중등분야, 고등분야로 나눌 수 있고, 체재기간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또한 어학연수, 단기교육연수, 직업훈련, 학위과정 등 다양한 유학 형태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네스코와 OECD의 유학생 정의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즉 학사학위부터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유학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유학생 통계는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 용어 정의, 수집 방법, 분류 방식에 따라 같은 기간 통계라도 그 수치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다. 전 세계 유학생의 이동성을 파악하고 각국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유네스코 UIS(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의 통계와 OECD 통계를 주로 사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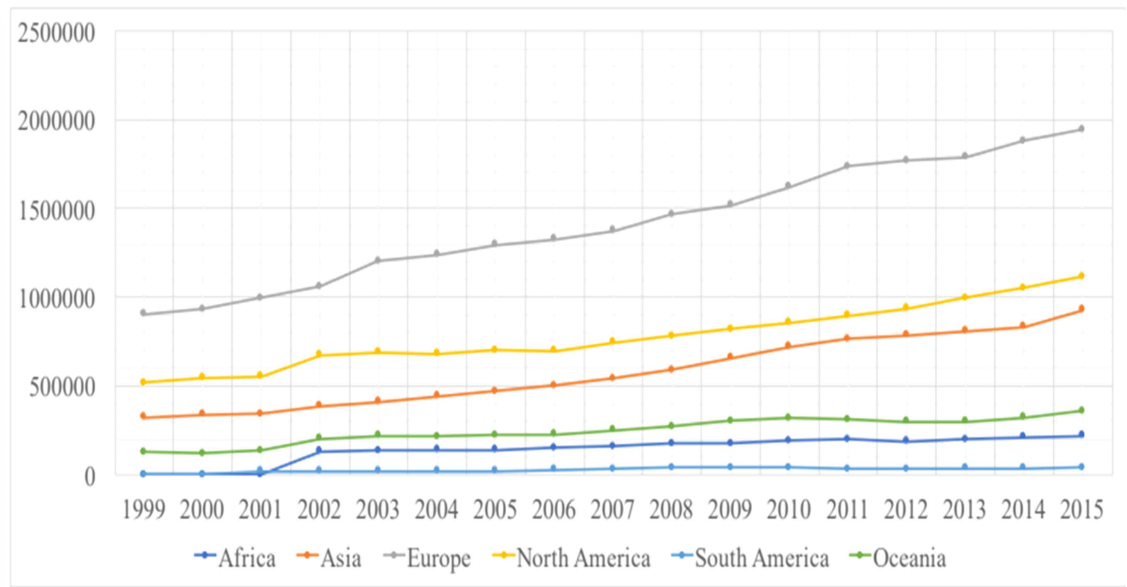
학위 취득을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 수는 유네스코가 통계를 작성한 1998년 2백만명에서 2017년 5.3백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수는 2027년 9백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²⁸⁾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학생 수가 매년 3.8% 비율로 증가하는데 비해, 유학생 수는 매년 5.5% 증가하여, 학생 수 중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2%에서 2017년 2.4%로 증가하였다. 이 수는 2027년 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학생 증가의 다수는 앞으로 큰 폭의 학생 수 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나올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왕성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를 바탕으로, 외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학생 배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8) 2027년 추정치는 5.5%의 연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되었다.

(1) 대륙별 외국인 유학생 유입 현황

<그림 4.1> 대륙별 외국인 유학생 유입(1999-2015)



출처 : Kuroda et al(2018)

유럽은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륙이다. 유럽 특히 EU 내에서는 국경 이동의 제한이 없고, ECTS와 같이 유학생 이동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시스템 등으로 인해 권역 내 유학생 이동이 특히 활발하다. 유럽 유학생들의 70% 이상은 유럽내 국가로 유학을 간다. 그 결과 유럽에서 받는 유학생의 절반은 유럽 출신이며, 그다음은 중국과 인도 출신이다.

다음으로 유학생을 많이 받는 대륙은 북미와 아시아이다. 북미지역은 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유학생을 받는 반면, 아시아 지역은 주로 같은 아시아권에서 오는 유학생이 대다수이다. 유학 목표지로서의 아시아권의 성장세는 지속되어, 2017년 북미를 추월하여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게 된다. 대륙별 유학생 유치현황을 2019년 데이터까지 확장하면 <표 4.2>와 같다.

2017년부터 아시아와 북미의 순위가 바뀌어, 아시아 지역이 유럽 다음으로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로 구성된 오세아니아는 5년간 유학생 유치 수에서 큰 증가율을 보이며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유학생 유입 수에 크게 변화가 없고 약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난 5년간 48%의 증가율을 보인 남미가 아프리카를 앞지르게 되었다.

<표 4.2> 대륙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지역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간 증가율	비중
유럽	1,953,179	2,034,229	2,115,383	2,214,238	2,300,264	18%	38%
아시아	999,348	1,101,090	1,199,164	1,320,595	1,473,051	47%	24%
북미	1,079,025	1,161,056	1,195,027	1,211,931	1,256,090	16%	21%
오세아니아	359,434	397,278	441,799	505,172	570,180	59%	9%
남미	162,511	172,889	200,478	204,627	239,769	48%	4%
아프리카	226,154	219,472	223,619	225,059	224,312	-1%	4%
합계	4,779,651	5,086,012	5,375,470	5,681,622	6,063,665	27%	100%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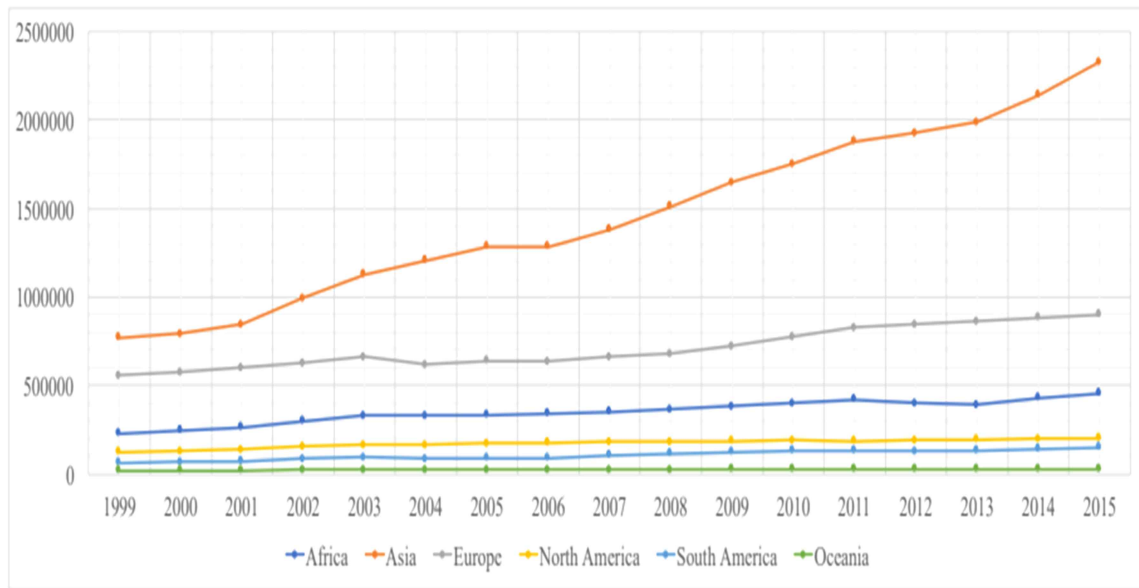
(2) 대륙별 유학생 유출 현황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대륙은 아시아로, 해외로 보내는 유학생의 수는 1999년 771,496에서 2019년 3,140,897로 크게 늘었으며, 다른 대륙에 비해 증가세 또한 더 가파르다. 전 세계 유학생의 절반 이상은, 이 지역 출신으로 그 증가율 또한 전 세계 유학생 증가율 평균보다 앞서고 있어, 당분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젊은 층 인구가 많은 나라가 비교적 많고, 지난 수십년간 경제성장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양과

질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세계 공용어인 영어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해외 유학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 대륙별 해외 유학생 유출(1999-2015)



출처 : Kuroda et al.(2018)

지역별로 유학생 유출 증가율은 각각 다르지만, 지역별 순위는 수십 년간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유학생을 많이 보내는 지역이다. 유럽은 같은 권역내에서의 이동이 매우 활발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대륙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드물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학생 유입 세계 1위인 미국의 경우 유학생 출신국 상위 10위권을 살펴보면 유럽 국가가 한 곳도 없다.

<표 4.3>은 2019년까지 대륙별 유학생 유출 현황이다.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 유학생 유입 수와 유출 수는 같아야 한다. 하지만 이 표의 대륙별 합계는 다음 장에서 보게 될 전 세계 유학생 수에는 차이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입 수는 자국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유학생을 집계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국가에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고 외국으로 유학을 간 경우, 또는 외국으로 이주한 뒤 고등교육기

관에 등록된 경우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시리아와 같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나라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경우에는 그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통계에 반영되나, 자국에서는 이러한 통계수치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표 4.3> 대륙별 유학생 유출 현황

지역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간 증가율
아시아	2,399,817	2,605,303	2,718,090	2,905,776	3,140,897	31%
유럽	919,192	951,936	988,066	1,010,285	1,001,931	9%
아프리카	510,491	543,191	556,351	566,846	577,308	13%
남미	285,451	296,340	328,750	358,374	386,532	35%
북미	132,161	136,153	137,783	135,999	152,541	15%
오세아니아	29,610	31,089	31,027	31,025	31,285	6%
합계	4,276,722	4,564,012	4,760,067	5,008,305	5,290,494	24%
World	4,779,651	5,086,012	5,375,470	5,681,622	6,063,665	27%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2 각국의 유학생 유치 현황

<표 4.4> 외국인 유학생 유치 상위 20개국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간 증가율
1 (-)	미국	907,251	971,417	984,898	987,314	976,853	8%
2 (1 ↑)	호주	294,438	335,512	381,202	444,514	509,160	73%
3 (1 ↓)	영국	430,833	432,001	435,734	452,079	489,019	14%
4 (1 ↑)	독일	228,756	244,575	258,873	311,738	333,233	46%
5 (1 ↑)	러시아	226,431	243,752	250,658	262,416	282,922	25%
6 (1 ↑)	캐나다	171,603	189,478	209,979	224,548	279,168	63%
7 (1 ↑)	중국**	167,295	183,080	206,278	231,724	261,810	56%
8 (4 ↓)	프랑스	239,409	245,349	258,380	229,623	246,378	3%
9 (4 ↑)	아랍 에미리트	73,445	77,463			225,339	207%
10 (1 ↓)	일본	131,980	143,457	164,338	182,748	202,907	54%
11 (4 ↑)	터키	72,178	87,903	108,076	125,138	154,505	114%
12 (N/A)	아르헨티나	N/A	75,688	88,873	109,226	116,330	N/A
13 (1 ↓)	네덜란드	86,189	89,920	96,289	104,015	108,353	26%
14 (6 ↑)	한국	54,540	61,888	70,796	84,749	98,857	81%
15 (5 ↓)	말레이시아	111,443	124,133	100,765		81,953	-26%
16 (N/A)	스페인	N/A	49,837	64,927	70,912	77,062	N/A
17 (1 ↓)	오스트리아	67,691	70,483	73,964	75,259	74,631	10%
18 (4 ↓)	사우디 아라비아	73,077	79,854	78,344	73,977	73,216	0%
19 (2 ↑)	스위스	50,591	51,911	53,368	54,279	55,698	10%
20 (3 ↑)	우크라이나	57,583	54,144	52,768	49,632	55,333	-4%
기타 국가		956,094	1,162,500	1,133,612	1,141,229	1,119,793	17%
합계		4,400,827	4,974,346	5,072,122	5,215,120	5,822,519	32%

* 괄호안의 숫자는 2015년 순위를 기준으로 2019년 순위 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2 (1 ↑)는 2015년 순위(3위)에서 1계단 올라 2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 UIS 통계에는 홍콩, 마카오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모두 중국에 포함하였다.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표 4.4>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상위 20개국('19년 기준²⁹⁾)의 5년간 외국인 유학생 통계이다. 상위권에 있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가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의 39%를 수용하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유학생 유치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학생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 오는 유학생 976.8천명 중 그 출신국은 중국(340천명), 인도(133천명), 한국(49.5천명), 사우디아라비아(38.4천명), 캐나다(26.5천명), 베트남(25.9천명), 브라질(15.2천명), 멕시코(15.1천명), 일본(14.7천명), 네팔(14천명)이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 오는 유학생의 다수는 주로 아시아와 미주 대륙에서 오고 있으며, 상위 10개국 중 유럽 국가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흥미롭다. 유럽의 학생들의 유럽내 유학은 활발하나, 다른 대륙간의 유학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2015년에 3위였던 호주는 전통적인 유학 대상국인 영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영국과 호주는 교육을 주요 서비스 수출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유학생 유치 수는 29만명에서 50만명으로 5년간 73%나 증가하여, 같은 기간 14% 증가한 영국을 제치고 2위가 되었다.

호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175억 호주달러에서 2019년 376억 호주달러로 증가하였다³⁰⁾. 교육은 호주의 가장 큰 서비스 수출품목(총 서비스 수출의 34.3%)으로 개인 여행 서비스(216억 달러), 전문 경영 컨설팅 서비스(48억 달러) 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크다. 또한 철광석(628억 달러), 석탄(543억 달러)에 이어 호주의 세 번째로 큰 수출품이다³¹⁾.

호주정부는 유학생 유치를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하면서,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유학생 이동성 활성화를 위한 협약 및 각종 회의 등을 후원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최근에는 유학생 유치국을 다변화하고, 호주의 기술 수요에 적합한 유학생을 유치하며, 질관리

29) 자료를 추출한 2022년 3월 현재, 대부분 나라의 2020년, 2021년 자료는 공란으로 이용할 수 없다.

30)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

31) <https://www.dese.gov.au/>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유학정책을 발표하였다³²⁾.

상위권을 차지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 세 나라 모두 유학생 수는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작은 프랑스의 순위가 하락하였다. 러시아 유학생의 다수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구 소련연방에 속했다가 독립한 국가들에서 온다. 그 외는 중국과 인도도 있다.

유학생 증가율이 가장 큰 나라는 아랍에미리트로 5년간 207%이다. 이는 시리아나 이라크, 팔레스타인, 오만과 같은 나라에서 온 난민의 영향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유학생의 수와 구성은 중동 정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 증가율이 5년간 50%를 넘는 나라는 7개국으로, 호주(73%), 캐나다(63%), 중국(56%), 아랍에미리트(207%), 일본(54%), 터키(114%), 한국(81%)이다.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유학생 유치 필요성을 천명하면서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펼쳤다. 2010년에 발표된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개발계획(2010~2020)”, 2016년에 발표된 “일대일로 교육행동”, 또한 개발도상국과 “Silk Road University Association”과 같은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펴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s), 대학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2014년에는 3.7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³³⁾. 중국의 적극적인 정책과 유학이후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중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5년간 56% 증가하여 중국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 7위가 되었다³⁴⁾.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순위는 한 단계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그 절대 수는 5년간 54% 증가하였다. 일본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다양

32) Australian Strategy for International Education 2021-2030

33) Hang Gao and Hans de Wit(2017)

34) 중국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와 유네스코의 통계에는 차이가 많다. 여기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네스코 통계를 기본으로 사용할 것이다.

한 장학금을 제공³⁵⁾하고 학생 이동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국, 베트남, 네팔 등에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5년간 유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터키는 2004년부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유럽국가들과의 이동성이 증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6만명이 넘는 학생과 교원이 터키를 찾았다³⁶⁾. 또한 터키에 있는 많은 시리아 난민이 내전이 끝난 뒤에서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터키에 남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영향도 있다. 하지만 터키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의 효과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2012 SETA 보고서에 의하면 터키에 온 외국 유학생의 40%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재원은 사립기관, 정부기관, 터키정부의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인 BOP의 지원이다.

상위 20개국 중 말레이시아는 유학생 유입 수가 5년간 26% 감소하여, 유학생 수가 대폭 증가한 한국과 순위를 바꾸게 되었다. 세계적인 한류의 유행,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 등으로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0년 한국에 온 유학생의 출신국가는 중국(43.6%), 베트남(24.9%), 우즈베키스탄(5.9%), 몽골(4.5%), 일본(2.1%), 미국(1.2%) 순이다³⁷⁾.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대표적인 유학생 유치국으로 지난 4년간 유학생 유치 규모는 54% 증가하였다.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다른 남미 국가들에게 아르헨티나로 유학을 오고 있다.

35)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2021), Scholarship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2021-2022

36) <https://www.avrupa.info.tr/en/erasmus-programme-189>

37) 교육부(2021) 2020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2.3 각국의 유학생 유출 현황

<표 4.5> 유학생 유출 상위 20개국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간 증가율
1 (-)	중국	857,544	906,668	968,333	1,036,824	1,100,454	28%
2 (-)	인도	256,996	305,369	341,465	377,849	461,792	80%
3 (8 ↑)	베트남	68,010	82,644	94,608	108,301	126,059	85%
4 (1 ↓)	독일	117,088	118,081	122,958	122,524	122,445	5%
5 (1 ↑)	프랑스	86,691	90,836	94,756	99,567	103,161	19%
6 (2 ↑)	미국	80,539	83,949	86,571	86,029	102,246	27%
7 (3 ↓)	한국	107,861	105,477	105,453	101,694	101,493	-6%
8 (16 ↑)	네팔	40,558	49,468	64,355	82,047	93,921	132%
9 (-)	카자흐스탄	78,253	90,213	84,859	88,118	89,292	14%
10 (8 ↑)	브라질	50,387	51,969	58,280	70,055	81,882	63%
11 (1 ↓)	우크라이나	68,205	77,419	77,890	78,578	77,586	14%
12 (1 ↑)	이탈리아	60,906	67,195	74,794	76,123	77,505	27%
13 (13 ↑)	시리아	38,570	46,734	53,462	64,518	74,839	94%
14 (9 ↓)	나이지리아	92,531	96,692	85,917	76,285	71,133	-23%
15 (8 ↓)	사우디 아라비아	86,239	90,238	84,242	77,406	66,398	-23%
16 (1 ↑)	투르크 메니스탄	51,065	47,872	46,224	49,350	63,584	25%
17 (3 ↑)	파키스탄	48,212	52,588	53,854	57,938	59,784	24%
18 (2 ↓)	이란	51,138	52,770	53,214	56,902	59,585	17%
19 (7 ↓)	말레이시아	64,728	65,086	63,281	61,586	59,144	-9%
20 (2 ↑)	모로코	45,017	47,635	51,310	52,945	56,730	26%
기타 국가들		1,926,281	2,035,124	2,094,274	2,183,719	2,241,495	16%
합계		4,276,819	4,564,027	4,760,100	5,008,358	5,290,528	24%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유학생 유출을 보면, 아시아 학생의 이동성 증가가 눈에 띈다. 사실상 전 세계 유학생의 절반 이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출신이다. 유학생 송출국 부동의 1, 2위는 중국과 인도이다. 이들 나라의 5년간 유학생 송출 증가율은 상위 20위권 나라들 평균(24%) 보다 높아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 호주, 영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으로 유학생을 보내고 있다. 인도의 유학생 수는 1위인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유학생 증가율(80%)이 매우 큰 편이다. 인도는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순으로 유학생을 보내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 수가 5년간 85% 증가하여 독일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하였다. 베트남은 30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에 달하며, 17~2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17%인 젊은 나라로, 2018년 실질 GDP성장률이 7.1%에 달하는 등 지난 10년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국경을 넘는 학생의 이동성도 활발하다. 베트남 유학생은 주로 일본(28%), 미국(25%), 호주, 한국, 프랑스 등에 유학을 간다.

한국은 유학생 유출 수가 조금씩 감소하면서 순위가 하락하였다.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위상이 꾸준히 상승하는 한편 자국 출신의 학자를 양성하려는 한국정부의 BK21 사업, 글로벌 Ph.D. 사업 등 석박사과정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유학생 수가 132% 증가한 네팔은 나라 규모는 크지 않으나,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젊은 나라이다. 게다가 네팔 고등교육 기관의 1%만이 석박사 학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팔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네팔 유학생은 주로 일본, 호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³⁸⁾.

시리아는 다른 나라 유학 사례와는 다르다. 시리아는 2011년 내전이 발발한 이후 유학생 숫자가 2012년 2.8만명에서 2019년 7.4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학위를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내전을 피하기 위해 이웃나라로 간 난민들이 그 나라 고등교육기관에 진

38)www.masteretudes.fr/news/Why-the-Student-Mobility-Rate-in-Nepal-Is-Amazingly-Increasing-665

학했기 때문이다. 시리아는 유학생 유출 상위 20개국에 포함되어 있으나, UIS 순유출국 통계에는 자료가 없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나라의 고등교육 통계에는 잡히나, 시리아 본국에서는 유학생 유입 및 유출을 포함한 고등교육 통계 자체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4 유학생의 순이동

<표 4.6>은 유학생 유입에서 유출을 뺀 순유입 학생 수 상위 20개국 순위이며, <표 4.7>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순유출국 20개국 순위이다.

순유입국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터키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다만 이들 나라는 주변 국가로부터 난민증가로 인해 학생 순유입 증가분이 많아 각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를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 12위, 순유입국 10위로 상승하였다. 남미 유학생들이 선택한 국가들은 아르헨티나,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 순이다. 반면 브라질은 순유출국가로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생의 수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순유입국이었던가, 2019년부터 갑자기 순유출국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이탈리아로 유학 오는 유학생의 출신국은 중국(22%)이 압도적으로 많고, 인도(6%), 이란(5%), 터키(4%) 순이다.

한국은 2015년 5만명 이상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에는 그 수가 2천명대로 대폭 감소하였다.

<표 4.6> 학생 순유입(유입-유출) 상위 20개국 (유입-유출)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1 (-)	미국	826,712	887,468	898,327	901,285	874,607
2 (1 ↑)	호주	282,297	322,663	367,641	431,173	495,892
3 (1 ↓)	영국	399,363	397,503	399,186	412,826	449,515
4 (-)	러시아	169,001	186,422	193,515	204,813	234,762
5 (1 ↑)	캐나다	121,688	138,900	160,409	176,181	230,094
6 (4 ↑)	아랍에미리트	62,550	65,745			211,859
7 (-)	독일	111,668	126,494	135,915	189,214	210,788
8 (-)	일본	101,424	111,806	132,599	150,684	170,542
9 (4 ↓)	프랑스	152,718	154,513	163,624	130,056	143,217
10 (N/A)	아르헨티나		68,119	80,477	100,718	107,047
11 (9 ↑)	터키	26,523	42,358	62,342	77,661	106,877
12 (3 ↓)	네델란드	70,971	72,891	77,806	86,475	88,342
13 (1 ↓)	오스트리아	50,376	52,407	54,758	53,750	52,493
14 (3 ↓)	뉴질랜드	51,811	48,255	47,877	47,660	47,796
15 (-)	스위스	37,865	38,496	38,999	37,794	39,203
16 (N/A)	스페인		11,740	23,360	28,653	37,394
17 (3 ↓)	벨기에	42,939	46,950	29,950	38,021	35,515
18 (-)	체코	29,194	30,280	31,061	32,435	33,939
19 (3 ↓)	남아프리카	34,197	34,995	34,559	30,230	30,209
20 (1 ↑)	폴란드	20,121	30,496	38,760	27,974	30,099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표 4.7> 학생 순유출(유입-유출) 상위 20개국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1 (-)	중국	-690,249	-723,588	-762,055	-805,100	-838,644
2 (-)	인도	-215,003	-260,603	-294,762	-331,772	-414,368
3 (1 ↑)	베트남	-65,136	-77,020	-90,446		-118,809
4 (1 ↓)	카자흐스탄	-68,276	-77,680	-71,009	-73,786	-66,564
5 (N/A)	투르크메니스탄					-63,409
6 (4 ↑)	브라질	-30,532	-31,973	-37,609	-48,874	-60,079
7 (2 ↑)	콜롬비아	-30,607	-32,323	-39,763	-43,896	-46,815
8 (-)	아제르바이잔	-35,780	-39,975	-38,518	-39,489	-39,348
9 (2 ↓)	이란	-37,371	-34,072	-32,178	-36,322	-37,984
10 (1 ↑)	모로코	-29,633	-30,606	-31,189	-32,535	-34,634
11 (2 ↑)	팔레스타인	-26,347	-28,105	-24,997	-27,454	-27,795
12 (7 ↑)	스리랑카	-16,348	-17,462	-19,544	-22,940	-27,054
13 (10 ↑)	알제리	-12,531	-14,755	-17,192	-21,380	-22,988
14 (76 ↑)	이탈리아	29,513	25,460	22,769	30,488	-22,650
15 (13 ↑)	우쿠라이나	-10,622	-23,275	-25,122	-28,946	-22,253
16 (11 ↑)	에콰도르	-10,835	-10,491		-16,556	-17,397
17 (1 ↓)	사이프러스	-19,019	-17,711	-14,005	-15,228	-13,093
18 (1 ↓)	몰도바	-16,937	-16,408	-14,815	-16,520	-13,037
19 (7 ↑)	오만	-11,742	-12,737	-13,240	-13,044	-12,470
20 (N/A)	그리스		-11,978	-12,899	-12,785	-11,843
						
41(36 ↓)	한국	-53,321	-43,589	-34,657	-16,945	-2,636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3. OECD 국가와 한·중·일 유학생 현황 비교

유네스코의 고등교육 통계 데이터는 학위과정에 등록된 유학생 수치에 대해 각국이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제공하고 있는 통계항목이 제한적이다. 반면 한·중·일 교육부와 그 산하 유학생 관리조직의 통계자료는 나라별로 유학생의 범위(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 포함 여부), 통계조사 방법 및 분류체계 등의 차이로 인해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비교적 상세한 최신 유학생 자료를 보유·제공하는데 비해, 중국은 유학생 분류가 세부적이지 않고 최신의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 3국의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장에서는 먼저 유네스코와 OECD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중·일 3국의 고등교육 학위과정 유학생 현황과 전 세계 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3.1 외국인 유학생 유입 현황

<표 4.8> 한·중·일 외국인 유학생 유입 규모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간 증가율
한국	54,540	61,888	70,796	84,749	98,857	81%
중국	167,295	183,080	206,278	231,724	261,810	56%
일본	131,980	143,457	164,338	182,748	202,907	54%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한·중·일 3국 모두 자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유학생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은 유학생 유입규모는 작지만 그 비율은 5년간 81%로 크게 증가하였고, 중국과 일본 또한 5년간 50% 이상 성장하여 유학생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인구 규모, 고등교육 재학생 규모가 크게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유학생의 수치만을 비교하기 보다는, 각국의 고등교육 재학생 규모에 비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더 고등교육 국제화 수준 등을 비교하는데 더 타당할 것이다.

<표 4.9> 한·중·일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학생 현황

국가	외국인 학생수 (천명)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						
		단기고등교육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전체 고등교육기관		
		2018년				2010	2014	2018
한국	85	0.5%	2.5%	8.8%	11.4%	2%	1.6%	2.7%
중국	178	N/A	N/A	N/A	N/A	N/A	N/A	N/A
일본	183	8.1%	2.8%	9%	18.8%	N/A	3.4%	4.7%

출처: OECD/UIS/Eurostat(2020) 2017년 수치 기준

위 표는 한·중·일 3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재학생 중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다. 중국은 고등교육 학위과정별 외국인 학생 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음 장에서 중국정부의 통계를 활용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중국 유학생 중에는 아직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 유학생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규모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은 2.7%, 일본은 4.7% 수준이다. 학사학위보다는 석·박사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OECD 전체국가의 평균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OECD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전체 등록 학생의 약 6%에 해당한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학사학위 과정에서 유학생의 비율이 낮고, 석·박사과정으로 갈수록 유학생의 비율이 증가한다. 석사학위 과정에서 유학생의 비율은 OECD 전체에서 약 13%, 박사학위 과정 이상에서는 22%를 차지한다. 룩셈부르크,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은 박사과정생의 40% 이

상이 해외에서 온 유학생이다.

<표 4.10> OECD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학생 현황

국가	외국인 학생수 (천명)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						
		단기 과정	학사 학위	석사 학위	박사 학위	전체 고등교육기관		
		2018년				2018	2010	2014
OECD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³⁹⁾								
호주	445	32.5	16.0	53.4	34.3	26.5	18.3	22
오스트리아	75	1.3	18.7	22.3	33.3	17.5	15.5	15
벨기에	54	8.1	6.9	18.8	41.5	10.5	11.2	7
캐나다	225	13.1	12.3	17.1	35.0	13.8	9.5	
칠레	6	0.5	0.2	1.4	12.1	0.5	0.3	
덴마크	33	12.9	5.9	19.6	36.2	10.7	9.9	8
에스토니아	4		6.6	14.1	17.3	9.6	3.7	2
핀란드	24		5.5	11.9	22.7	8.1	7.4	6
프랑스	230	2.8	6.6	12.1	38.2	8.8	9.8	
독일	312	0.0	6.6	15.6	11.9	10.0	8.2	9
헝가리	32	0.9	8.7	18.5	19.4	11.4	7.0	5
아이슬란드	1	28.4	4.7	10.8	33.4	8.0	7.4	5
아일랜드	22	3.6	7.2	20.1	30.3	9.6	7.0	
이스라엘	11		2.9	4.8	7.4	2.9	2.8	1
일본	183	8.1	2.8	9.0	18.8	4.7	3.4	
라트비아	8	0.8	7.5	20.5	10.1	9.3	5.0	2
리투아니아	6		3.5	11.3	6.8	5.3	3.0	1
룩셈부르크	3	9.8	23.2	78.3	85.9	47.7	43.9	
멕시코	7	0.1	0.1	0.7	2.5	0.2	0.1	
네덜란드	105	2.7	9.8	17.5	44.0	11.8	10.1	4

국가	외국인 학생수 (천명)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						
		단기 과정	학사 학위	석사 학위	박사 학위	전체 고등교육기관		
		2018년				2018	2010	2014
뉴질랜드	53	18.6	17.1	32.0	49.5	19.7	18.7	15
노르웨이	12	0.9	2.5	7.4	21.1	4.3	3.6	3
폴란드	54	0.0	3.2	4.7	2.3	3.6	2.0	1
포르투갈	28	3.2	4.9	10.0	29.0	7.9	4.2	3
슬로베니아	3	2.4	3.9	5.9	9.8	4.5	2.7	2
스페인	71	1.2	1.3	10.6	17.2	3.5	2.4	3
스웨덴	31	0.2	2.8	11.9	35.5	7.2	5.9	7
스위스	54	0.0	9.5	29.2	55.9	17.7	17.1	17
영국	452	3.9	14.8	34.6	41.5	18.3	18.2	16
미국	987	2.2	4.5	12.7	25.2	5.2	4.2	3
외국인 학생(Foreign students)⁴⁰⁾								
콜롬비아	5	0.1	0.2	0.6	3.4	0.2	0.2	
코스타리카	3					1.3		
체코	45	5.2	11.7	16.1	18.4	13.6	9.8	
그리스	26		3.8	0.8	1.3	3.4	4.2	
이탈리아	107	7.4	5.2	5.8	16.1	5.6	4.7	
한국	85	0.5	2.5	8.8	11.4	2.7	1.6	2
슬로바키아	12	1.2	6.6	10.1	9.8	8.0	5.6	4
터키	125	0.3	1.9	4.9	8.4	1.7	0.9	
OECD 국가	3,939	3.0	4.6	13.3	22.4	6.0	5.0	
EU 23개국	1,738	2.8	7.0	13.8	22.7	9.2	8.1	
PARTNERS								
외국인 학생(Foreign students)								
아르헨티나	89					2.8		
브라질	21	0.2	0.2	0.8	2.3	0.2	0.2	0
중국	178							

국가	외국인 학생수 (천명)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						
		단기 과정	학사 학위	석사 학위	박사 학위	전체 고등교육기관		
		2018년				2018	2010	2014
인도	45					0.1	0.1	
인도네시아	8					0.1		
러시아	262	1.1	5.1	6.1	7.5	3.9	3.0	2
사우디 아라비아	74					4.6	4.8	
남아프리카	45					4.1	4.2	

출처: OECD/UIS/Eurostat(2020)

<표 4.11>은 OECD 국가에서 수학중인 유학생의 출신 대륙별 현황이다. OECD 평균을 보면 아시아 출신이 57%, 유럽 22.7%, 아프리카 8.2%, 북미 2.8%, 오세아니아 0.6%이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출신 비중이 93% 내외로 유학생이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표 4.11> OECD 국가 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 지역 현황 (단위 : %)

국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미상
일본	93.27	3.07	1.13	0.69	1.47	0.36	0.00
한국	92.77	1.59	2.68	0.85	1.90	0.21	(0.00)
호주	86.51	3.44	2.27	3.70	1.33	0.78	1.96
인도네시아	85.74	3.13	3.82	3.01	0.22	3.82	0.27
뉴질랜드	78.50	5.46	1.38	1.90	5.94	6.82	(0.00)
미국	76.91	6.84	4.83	7.99	2.72	0.71	0.00
러시아	76.21	15.77	4.32	0.54	0.06	0.01	3.09

39)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은 본국을 떠나 유학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유학생은 해당 국가의 영구 거주자나 일반 거주자가 아닌 학생, 또는 다른 나라에서 이전 단계의 교육을 받은 학생으로 정의된다.

40) 외국인 학생(Foreign students)은 해당국의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해당국에서 태어났거나 장기 거주자이더라도 해당국의 국적이 없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이민자 귀화에 대한 국가정책 차이에 따라 학생 이동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미상
터키	70.59	14.93	13.11	0.25	0.53	0.09	0.50
인도	68.20	2.52	24.86	0.19	3.83	0.40	0.00
캐나다	64.31	12.40	10.87	5.86	4.35	0.38	1.82
사우디아라비아	62.95	4.35	30.30	0.43	1.52	0.44	(0.00)
그리스	57.65	19.38	2.30	0.32	0.71	0.13	19.52
OECD	56.98	22.70	8.21	5.86	2.82	0.56	2.87
영국	54.10	31.55	6.14	2.26	5.36	0.58	0.00
아일랜드	46.47	24.64	4.19	2.00	16.83	0.71	5.16
라트비아	46.38	50.07	1.67	0.50	1.30	0.09	(0.00)
핀란드	37.75	29.35	8.32	2.34	2.47	0.34	19.42
헝가리	36.43	50.57	8.45	1.81	2.57	0.10	0.08
독일	36.27	38.86	9.11	5.05	3.05	0.46	7.20
이탈리아	33.97	42.45	12.90	9.18	0.95	0.09	0.46
EU 23개국	32.40	40.47	12.40	5.90	3.06	0.33	5.44
리투아니아	32.03	42.89	3.68	0.81	2.19	0.14	18.25
노르웨이	31.10	48.44	9.50	3.88	4.57	0.58	1.94
스웨덴	29.39	38.73	4.60	2.89	2.57	0.35	21.47
에스토니아	26.33	58.60	9.66	2.46	2.62	0.23	0.11
프랑스	22.24	17.19	49.82	6.26	1.90	0.19	2.40
폴란드	19.56	75.48	2.28	0.57	2.04	0.08	0.00
아이슬란드	18.11	57.48	2.66	2.94	17.62	1.19	0.00
이스라엘	15.60	41.45	2.53	5.88	19.95	0.61	13.97
네델란드	14.86	57.27	1.41	2.26	1.49	0.13	22.58
체코	14.38	81.73	1.89	0.68	0.93	0.03	0.36
스위스	11.83	71.38	4.45	3.95	3.06	0.44	4.89
브라질	11.75	11.82	24.49	47.39	3.22	0.18	1.15
룩셈부르크	10.98	78.20	6.72	2.62	1.40	0.09	(0.00)
덴마크	10.82	81.58	1.75	2.19	3.03	0.62	0.00
오스트리아	10.44	82.83	1.48	1.61	1.13	0.17	2.34
슬로바키아	9.00	88.82	1.47	0.30	0.39	0.02	(0.00)

국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미상
스페인	8.52	38.53	4.97	45.04	2.75	0.12	0.07
포르투갈	8.08	17.26	31.20	42.32	1.05	0.11	0.00
슬로베니아	6.78	91.43	0.76	0.56	0.41	0.06	(0.00)
벨기에	3.66	45.32	8.83	1.37	0.45	0.03	40.33
남아프리카	3.08	5.43	80.03	0.64	2.18	0.13	8.52
코스타리카	1.91	3.26	3.23	90.00	1.49	0.03	0.07
콜롬비아	1.87	12.22	0.61	82.60	2.27	0.21	0.23
아르헨티나	1.32	4.31	0.34	91.07	2.77	0.07	0.12
멕시코	1.12	4.39	2.20	57.29	34.96	0.04	0.00
칠레	1.07	3.10	0.69	87.96	0.51	0.04	6.63

출처: OECD/UIS/Eurostat(2020)

<표 4.12>는 OECD 국가내 재학생의 전공별 비율이다. 학문 분야별로 외국인 유학생과 자국 재학생간의 전공선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자국 재학생 모두 경영/행정/법학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공학/제조/건설 분야이다. 이들 분야는 자국 재학생보다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선택 비율이 더 높다.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 또한 유학생이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이에 반해 교육과 보건분야는 유학생 입학 가능성이 낮은 분야이다.

<표 4.12> OECD 국가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전공 현황

국가	전공별 재학생 비율(%)													
	교육		인문학		사회과학, 언론정보		경영, 행정, 법학		자연과학, 수학, 통계		공학, 제조, 건설		보건	
	외국	자국	외국	자국	외국	자국	외국	자국	외국	자국	외국	자국	외국	자국
OECD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														
호주	2.5	11.9	6.4	12.7	2.6	9.1	48.6	23.1	4.4	6.9	12.3	7.6	8.9	23.1
오스트리아	5.7	14.4	14.6	9.5	19.1	9.3	16.8	22.9	10.8	7.6	16.2	16.9	8.8	8.3
벨기에	4.7	10.9	12.5	8.6	10.5	9.2	13.0	23.5	5.4	3.6	9.5	11.1	36.7	25.7
캐나다	1.2	5.9	10.5	13.1	12.5	14.9	29.5	22.5	12.3	9.0	19.4	11.0	4.9	16.2
칠레	8.3	11.3	6.2	4.1	5.7	4.8	31.1	22.3	5.8	2.0	18.2	20.8	13.1	22.1
덴마크	1.9	8.8	10.9	10.7	8.7	9.5	28.1	22.9	6.9	5.3	21.0	10.7	8.2	24.4
에스토니아	1.7	7.3	13.1	13.2	10.7	6.1	39.3	21.4	6.3	6.1	11.3	16.3	3.3	12.6
핀란드	2.9	5.6	10.3	11.7	4.7	7.1	23.6	17.4	5.9	5.2	19.6	18.4	10.4	19.3
프랑스	1.8	3.8	16.4	12.9	11.8	8.5	27.2	27.7	12.5	9.2	15.9	12.5	7.0	16.2
독일	2.1	8.7	15.8	13.0	8.0	8.1	18.0	22.5	9.0	10.4	29.0	18.9	6.6	7.8
헝가리		13.2		8.4		8.2		25.1		3.5		16.0		8.4
아이슬란드	6.0	13.0	43.4	9.3	8.1	15.8	6.7	20.9	18.0	4.4	8.4	9.2	3.8	15.9
아일랜드	1.3	7.0	11.4	15.4	6.9	5.6	21.6	20.8	8.7	9.9	11.3	10.9	25.0	16.2
이스라엘	8.4	19.0	15.6	7.8	19.7	18.5	17.8	14.2	9.7	6.0	9.4	20.2	12.6	8.0
일본														
라트비아	0.7	7.7	3.0	7.1	6.3	8.1	32.4	27.2	0.6	2.9	11.1	16.8	29.6	13.5
리투아니아	2.1	5.0	9.9	8.7	17.7	8.3	26.2	26.3	2.0	4.1	15.4	19.2	20.7	17.1
룩셈부르크	5.0	17.2	6.8	15.9	12.5	10.6	43.5	24.4	8.7	5.1	7.6	10.4	3.5	10.9
멕시코														
네덜란드	2.3	11.1	11.9	7.7	19.1	10.0	28.4	27.2	7.3	5.8	12.1	9.0	7.7	17.8
뉴질랜드	3.5	8.9	7.5	13.5	7.8	12.7	36.3	19.1	8.6	9.2	12.1	8.9	6.0	17.3
노르웨이	4.2	16.3	19.4	9.6	12.5	11.1	14.7	19.1	15.7	4.5	12.2	10.3	10.5	18.4
폴란드	1.6	9.9	10.7	9.5	17.9	10.7	26.7	22.0	2.3	4.1	8.4	16.8	16.4	12.1
포르투갈	5.4	3.4	12.2	10.1	12.1	10.6	23.9	21.2	6.1	6.0	20.4	21.2	12.0	16.0
슬로베니아	4.6	10.0	10.5	8.9	15.4	8.3	16.3	18.5	7.7	6.0	21.0	18.2	8.5	13.4
스페인	5.0	11.8	8.8	11.2	10.9	9.5	26.7	20.4	5.1	5.6	12.6	14.0	22.1	15.1
스웨덴	2.6	14.6	12.6	12.2	13.3	11.7	12.6	14.1	13.0	4.3	25.8	17.1	11.9	18.9

국가	전공별 재학생 비율(%)													
	교육		인문학		사회과학, 언론정보		경영, 행정, 법학		자연과학, 수학, 통계		공학, 제조, 건설		보건	
	외국	자국	외국	자국	외국	자국	외국	자국	외국	자국	외국	자국	외국	자국
스위스	4.8	10.6	13.8	8.6	11.8	7.8	19.6	26.8	17.4	6.6	18.0	14.7	8.0	17.4
영국	2.4	6.7	13.0	15.1	12.2	11.1	33.1	17.6	11.7	15.9	14.5	8.1	7.1	17.8
미국														
외국인 학생(Foreign students)														
콜롬비아	7.4	7.6	9.7	4.4	12.4	9.1	27.7	38.7	1.8	1.8	15.1	19.8	16.2	7.8
코스타리카														
체코	1.8	11.9	9.4	9.3	10.2	9.1	20.3	19.2	7.5	5.8	14.1	15.0	18.7	13.2
그리스	4.2	4.7	18.0	13.3	14.5	12.5	12.7	20.6	10.9	9.4	16.6	22.0	12.7	7.5
이탈리아	1.6	5.2	25.2	16.4	13.5	13.6	15.4	18.4	5.6	8.3	21.8	15.9	11.2	14.7
한국	2.5	5.9	21.2	15.9	14.1	5.7	30.5	14.0	2.8	5.1	12.7	23.1	4.1	13.7
슬로바키아	10.1	13.1	7.1	7.9	4.6	11.1	9.6	19.3	2.3	5.6	7.7	13.0	51.1	16.1
터키	5.9	5.4	12.9	12.5	13.9	10.1	19.1	40.7	5.3	2.4	25.2	12.3	12.1	8.3
OECD	2.7	7.8	13.3	11.2	12.1	9.3	27.3	26.7	8.1	5.5	17.0	15.8	9.5	13.4
EU23개국	2.6	8.3	14.1	12.3	11.9	9.8	24.5	21.8	9.2	8.3	17.6	14.4	10.9	14.5

출처: OECD/UIS/Eurostat(2020)

3.2 유학생 유출 현황

<표 4.13>을 보면 중국의 유학생 유출은 유학생 유입 증가비율보다는 작지만 5년간 그 수가 28% 증가하며, 세계 최대의 유학생 유출국이다. 반면 한국은 유학생 유출 규모가 소규모이지만 줄어들어 5년간 6% 감소하였다. 일본은 유학생 유출은 5년간 6%로 완만히 증가하였으며, 전체 고등교육 규모에 비해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 비율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표 4.15>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해외로 유학간 자국학생의 비율이 0.9%로 OECD 평균인 1.8%의 절반에 해당된다.

<표 4.13> 한·중·일 유학생 유출 규모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간 증가율
한국	107,861	105,477	105,453	101,694	101,493	-6%
중국	857,544	906,668	968,333	1,036,824	1,100,454	28%
일본	30,556	31,651	31,739	32,064	32,365	6%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한·중·일 3국의 학생 순유입 및 순유출 규모를 보면 <표 4.14>와 같다. 일본은 꾸준히 학생 순유입이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순유출 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중국은 유입에 비해 유출이 더 많아 순유출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 4.14> 한·중·일 유학생 순유입·유출 규모 (유입-유출)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	-53,321	-43,589	-34,657	-16,945	-2,636
중국	-690,249	-723,588	-762,055	-805,100	-838,644
일본	101,424	111,806	132,599	150,684	170,542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표 4.15> OECD 학생 이동성 현황

	해외유학간 자국학생 비율	해외유학간 자국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 비율	국내외 자국 학생 100명당 외국인 학생 수	인근국가에서 오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	국제교육시장 점유율(%)
OECD					
호주	1.1	33.3	35.7	3.3	7.9
오스트리아	5.7	3.5	20.0	57.6	1.3
벨기에	3.3	3.4	11.3	37.9	1.0
캐나다	3.3	4.6	15.5	4.2	4.0
칠레	1.3	0.3	0.4	34.2	0.1
콜롬비아	1.9	0.1	0.2	59.0	0.1
코스타리카	1.5	0.9	1.3	49.8	0.1
체코	4.2	3.6	15.1	51.9	0.8
덴마크	2.1	5.6	11.7	36.8	0.6
에스토니아	8.2	1.2	9.7	42.9	0.1
핀란드	4.0	2.1	8.4	13.4	0.4
프랑스	4.0	2.3	9.2	13.5	4.1
독일	4.2	2.5	10.6	15.3	5.5
그리스	5.0	0.7	3.4	60.2	0.5
헝가리	4.9	2.5	12.3	22.4	0.6
아이슬란드	16.7	0.4	7.3	7.5	0.0
아일랜드	6.7	1.5	10.0	7.5	0.4
이스라엘	4.2	0.7	2.9	5.1	0.2
이탈리아	4.3	1.3	5.7	18.6	1.9
일본	0.9	5.7	4.9	54.0	3.2
한국	3.3	0.8	2.7	62.4	1.5
라트비아	6.6	1.4	9.5	16.8	0.1
리투아니아	8.5	0.6	5.1	23.9	0.1
룩셈부르크	75.9	0.3	22.0	53.9	0.1
멕시코	0.8	0.2	0.2	34.1	0.1

	해외유학간 자국학생 비율	해외유학간 자국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 비율	국내외 자국 학생 100명당 외국인 학생 수	인근국가에서 오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	국제교육시장 점유율(%)
네덜란드	2.2	6.0	13.0	28.0	1.9
뉴질랜드	2.3	10.4	23.9	5.9	0.9
노르웨이	5.9	0.7	4.2	20.1	0.2
폴란드	1.8	2.0	3.7	68.1	1.0
포르투갈	4.4	1.9	8.2	3.8	0.5
슬로바키아	19.2	0.4	7.1	56.6	0.2
슬로베니아	4.3	1.1	4.5	27.3	0.1
스페인	2.1	1.7	3.5	28.6	1.3
스웨덴	3.8	1.9	7.4	20.1	0.5
스위스	6.1	3.3	20.2	54.0	1.0
터키	0.6	2.6	1.7	47.4	2.2
영국	1.9	11.5	22.0	10.7	8.0
미국	0.5	11.7	5.5	5.0	17.6
OECD total	1.8	3.4	6.3		70.0
EU23 total	3.8	2.6	10.0		30.9
Partners					
아르헨티나	0.3	9.7	2.9	48.6	1.6
브라질	0.8	0.3	0.2	37.1	0.4
중국	2.2	0.2	0.4		3.2
인도	1.1	0.1	0.1	45.7	0.8
인도네시아	0.7	0.1	0.1	72.6	0.1
러시아	0.9	4.5	4.0	51.1	4.7
사우디 아라비아	4.8	1.0	4.6	32.2	1.3
남아프리카	0.9	4.8	4.2	44.0	0.8

* 위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에서는 단기 고등교육프로그램 유학생 제외

출처: OECD/UIS/Eurostat(2020)

2017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고등교육분야 학생의 1.8%가 해외에서 수학하고 있다. 룩셈부르크(75.9%), 슬로바키아(19.2%), 아이슬란드(16.7%)와 같이 그 비율이 예외적으로 높은 국가도 있으며, EU 23개국 평균은 3.8%로 외국에서 수학하는 유학생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국은 3.3%, 중국은 2.2%이며 일본은 0.9%대로 낮은 편이다.

V. 한·중·일 3국의 유학정책과 유학생 현황 분석 및 지역적 협력

1. 중국의 유학정책과 유학생 현황

중국은 국가 설립이후 러시아, 동유럽 등 사회주의국가들과 소규모 교환학생 교류를 시작한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소수의 유학생을 받아들였다.⁴¹⁾ 그러나 1996년 문화혁명으로 이러한 교류는 중단되었고, 이후 재개되었으나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는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본격적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로 유학생을 파견하고, 중국으로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교육 및 과학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해외 유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반면 중국으로 들어온 초기 유학생들은 주로 아시아국가 출신으로 중국어, 중국문학, 중국사 등 인문학 전공 위주의 비학위과정(연수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중산층의 증가로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중국 경제·기술의 발전과 교육의 현대화로 중국으로 들어오는 유학생 수 또한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과거 어학연수 및 단기 교육연수 위주의 유학생 유입에서 점차 기술과정과 전문학위과정에 등록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1 유학생 유치정책 및 현황

중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유학생을 위한 외국어 교육반이 개설되었고, 1990년 청화대, 북경대 등의 주요 대학에 외국어 학위과정이 개설되었다. 1991년 전국 29개 대학의 34개 전공에 영어수업과정이 개설되어 18개국에서 116명의 유학생을 유치하였으나, 아직 정부의 본격적인

41) 1950년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에서 교환학생 15명을 받아들인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이후 1955년 제 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유학생을 받아들였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은 없었다⁴²⁾.

1996년 중국 교육부 소속으로 국가유학기금위원회(China Scholarship Council: CSC) 설립되어 장학금 모집, 선발, 지급 등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2000년 제정된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은 외국 유학생 유치 관리체계, 외국 유학생의 유형분류, 장학금 제도, 교육방식, 체류수속 및 절차 등 대학내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체계화하였다⁴³⁾. 또한 2001년 '중국정부 장학금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중국 정부의 장학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한 중국어 실력을 가진 외국인 학생에게 중국어 능력시험 면제 등을 포함한 유학 신청 과정 간소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2010년 중국 정부는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 발전계획요강(2010~2020)'을 발표하여, 교육 개방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장학금 정책 마련, 다양한 전공수업과 영어수업 개설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같은 해 발표된 '유학중국계획(Study in China)'에서는 친중·지중 인사를 양성을 목표로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0만명⁴⁴⁾ 유치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수 교수인력 확보와 새로운 교육과정 개설, 특성화 대학 및 우수학과 지원, 외국 유학생 모집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2015년 발표된 '중국 정부장학금 지원 체계 개선 및 지원기준 제고에 관한 통지'에서는 장학금 규모를 확대하고 지급체계 개선을 공표하였다.

중국 교육부(2019)⁴⁵⁾에 따르면, 2018년 중국에는 196개국에서 온 총 492,185명⁴⁶⁾의 유학생이 있다. 이는 2017년 보다 3,013명 증가한 것이다. 해외 유입 유학생의 60%는 아시아지역 출신이며, 한국, 태국, 파키스 순으로 많다. 이중 약 63천명(12.8%)이 중국정부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

42) 이은화(2015)

43) 구자역(2014)

44) 외국인 유학생 50만명은 초중등 과정을 포함한 것으로 학위과정은 15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45) http://en.moe.gov.cn/documents/reports/201904/t20190418_378692.html

46) 이 숫자에는 어학연수, 교환학기 등 단기 유학생이 포함된 것이라, 학위과정 등록 학생 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네스코 통계치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표 5.1> 중국내 유학생 출신 대륙별 현황

유학생 출신 대륙	유학생 수	비율
아시아	295,043	59.95%
아프리카	81,562	16.57%
유럽	73,618	14.96%
미주	35,733	7.26%
오세아니아	6,229	1.27%

출처: 중국 교육부

<표 5.2> 중국내 유학생 출신 국가별 현황⁴⁷⁾

순위	국가	유학생 수	비율
1	한국	50,600	10%
2	태국	28,608	6%
3	파키스탄	28,023	6%
4	인도	23,198	5%
5	미국	20,996	4%
6	러시아	19,239	4%
7	인도네시아	15,050	3%
8	라오스	14,645	3%
9	일본	14,230	3%
10	카자흐스탄	11,784	2%
11	베트남	11,299	2%
12	방글라데시	10,735	2%
13	프랑스	10,695	2%
14	몽고	10,158	2%
15	말레이시아	9,479	2%

출처: 중국 교육부

47) 2022년 3월말 현재,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에서는 해당 자료가 없어 중국 교육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위의 유학생 숫자는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 학생, 6개월 이하 단기 연수 등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중국 외교부의 통계자료는 유학생을 6개월 이하 단기과정과 6개월 초과 장기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2016년 데이터를 보면, 총 442,431명의 유학생 유입이 있었는데 이는 2012년 보다 35%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어학연수 등 6개월 이하의 단기 연수는 108,959명이고, 6개월 이상 프로그램 등록자는 333,472명이다⁴⁸⁾.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 학위과정의 유학생은 2006년 55천명에서 2016년 210천명으로 지난 10년간 13%씩 증가했다. 중국어 어학연수생은 전체 유학생의 40% 이상이지만 그 비중은 2012년에 비해 15% 하락한 것으로 학위과정 유학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중국 교육부는 2012년 이후 교육, 과학, 공학, 농학 분야의 유학생 숫자가 2배가 되었으며, 의학, 공학, 경제학, 경영학이 가장 인기 있는 학위과정이라 한다. 또한 베이징과 상하이로 총 유학생의 1/3가량 유치하고 있다⁴⁹⁾.

중국은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정부의 외국인유학생 장학금은 거의 6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아세안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참여국가들과 함께 교육협력을 통한 유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교육을 통한 협력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 유학생은 2011년 54천명부터 2016년 81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일대일로 참여국가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 2013년 일대일로 사업이 시작된 이후 45개 참여국들과 상호 교육협정을 맺었다. 그 결과 2016년, 64~68개의 일대일로 참여국으로부터 28만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하였다. 파키스탄은 그 대표적인 나라로 2012년 9.5천명에서 2016년 19천명으로 유학생이 증가하였다.⁵⁰⁾

4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C.(2018).

49) <http://en.moe.gov.cn>

50) <https://chinapower.csis.org/china-international-students/>

<표 5.3> 일대일로 참여국 및 아세안 국가 출신 유학생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대일로 참여국	188,202	207,847	226,484	238,265	254,339	284,141
아세안	54,790	61,819	68,447	69,138	71,101	81,210

출처 : chinapower.csis.org

또한, 중국은 아프리카와의 협력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5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위한 10개 주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에는 3만명의 아프리카 유학생들에게 정부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국내 아프리카 유학생은 2003년 1,793명에서 2016년 61,594명으로 증가하였다. 아프리카 중 유학생이 많은 나라는 가나(5,552명), 나이제리아(4,746명), 탄자니아(3,520명) 순이다.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여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 아프리카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은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을 통해 교육협력을 통한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소프트 파워 증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1.2 유학생 파견 정책 및 현황

1978년 이전에는 자비유학이 거의 없었으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중국 정부(국가공안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해외유학은 국비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984년 ‘자비 출국 유학에 관한 임시규정’이 제정되면서, 개인이 합법적인 수속을 거쳐 학력, 연령, 유학기간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유학을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은 점차 가속화되고 시장경제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1993년 국가교육위원회(현 교육부)의 ‘자비 출국 유학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가 발표되면서, 자비

유학의 길이 더 넓어지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유학을 지원하고, 귀국을 격려하며, 출입국 왕래는 자유롭게”라는 모토 아래 미국 등 선진국에 유학생 출국을 허용하였고, 출국 및 귀국 절차가 순조로워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1996년 교육부는 국비유학생 선발 및 파견방법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교육부 소속으로 국가유학기금위원회(China Scholarship Council)를 설립하였다.

유네스코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2019년 고등교육과정 1,061천명의 유학생 유출하였다. 주요 전공은 경영(26.5%), 공학(19.7%), 수학과 컴퓨터과학(12.4%) 순이며, 대부분의 유학생은 영어권 국가를 선택하여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가 대략 65%를 차지한다. 또한 상당한 수의 학생들은 동아시아를 선택하여 일본과 한국은 각각 유학국 순위 4위, 6위에 있다.

<표 5.4> 중국 유학생 유학국 현황

순위	국가	유학생 수	비율
1	미국	340,222	32%
2	호주	155,594	15%
3	영국	122,140	12%
4	일본	91,528	9%
5	캐나다	75,768	7%
6	한국	55,670	5%
7	홍콩	39,663	4%
8	독일	32,472	3%
9	프랑스	23,524	2%
10	마카오	19,007	2%
11	뉴질랜드	18,680	2%
12	러시아	18,531	2%

순위	국가	유학생 수	비율
13	이탈리아	11,965	1%
14	태국	11,800	1%
15	말레이시아	11,713	1%
	기타	33,234	3%
총합계		1,061,511	100%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중국에서 해외로 유학을 간 학생 수는 2000년 4만명(중국 본토 기준)에서 2019년 1,061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1위의 유학생 송출국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2위인 인도의 2배가 넘는 규모이다. 그러나 해외 유학을 마친 뒤에도 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두뇌 유출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오크리지 과학교육연구소는 2002년 미국에서 과학기술 박사학위를 받은 중국인의 92%가 2007년에도 여전히 미국에 남아 있다고 보고했다. 2013년 국립과학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 중 85.6%는 수료 후 미국에 체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67.9%)이나 일본(57.6%) 등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보다 높은 수준이다.

2000년 중국 국무원은 '해외 고급인재의 귀국 장려에 관한 의견'을 제정하고, 국가경제사회 건설과 현대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매년 1만 명 내외의 귀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바 있다. 또한 2008년에 천인(Thousand Talents)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귀국자의 자녀에게 우수 학교 배정을 보장하고 보조금과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해외에서 최고의 인재를 식별하고 채용한 대학에 대해 보상한다. 선전(Shenzhen)과 항저우(Hangzhou) 등은 중국 인재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해 자체적인 현지 계획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일본의 유학정책과 유학생 현황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해외 유학생 파견 및 외국 유학생 유치 역사가 길다. 일본 유학의 역사는 도쿠가와 막부 말기와 메이지 시기인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3년 미국에 의한 개항 이후, 1866년경에는 허가를 받아 해외 유학갈 수 있게 되었으며, 메이지 시대 여권 발행 사유에는 공용, 유학, 상업, 어업, 직공, 출가, 여행, 기타 등의 8개가 있었다.

메이지 정부는 해외 시찰단과 해외 유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당시 미국과의 친선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수백명의 일본 유학생을 보냈다고 한다. 1871년 제정된 ‘해외유학생 규칙’은 학생 선발방법, 체재 기간, 국가별 전공과목, 비용, 학생 감독조직 등을 체계화하였다. 문부성은 1875년 ‘문부성대비유학생규칙’을 제정하여, 엘리트를 선발하여 해외 유학을 보내고 해외 유학생에 학비를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유학생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⁵¹⁾.

1882년에는 ‘관비해외유학생 규칙’이 제정되었는데, 동 규칙에는 유학 국가, 교육기관, 전공, 체재 기간, 귀국 후 직무상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관비 유학은 동 규칙 제정 이전부터 꾸준히 실시되어 온 것으로 동 규정을 통해 관비유학 제도가 정비·개선되었다.

초기 유학생이 미국, 영국, 프랑스에 주로 유학했던 반면, 1880년대 부터는 일본이 독일을 발전모델로 삼으면서, 독일 유학이 다수를 점하게 되었다.

2.1 유학생 유치정책 및 현황

일본의 현대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1983년 발표한 ‘21세기 유학생 정책에 관한 제언’에서 시작된다. 이는 국제 이해, 국제 협력, 개발도상국의 인재육성 협력의 관점에서 수립된 종합적인 유학생 정책으로 당시 8,116명이었던 유학생 수를 10만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

51) 김보림(2014)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계획’이라 불리기도 하였다⁵²⁾. 10만명 중 1만명은 국비유학생으로, 9만명은 사비유학생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983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중간에 감소하는 구간도 있었으나, 1999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은 크게 증가하여 2003년에는 유학생 10만명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한국, 대만에서 유입되는 유학생이 총 유학생의 78.4%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학생이 92.3%, 유럽·북미 지역에서 온 유학생이 4.9%이다⁵³⁾.

2008년 문부과학성은 2020년까지 약 30만명의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유학생 30만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일본사회 노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유학생 졸업 후 일본 내 취업으로 연계시켜 이민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특징이 있다.

동 계획은 (1) 일본 문화·교육에 대한 홍보를 통해 유학 희망자를 유치하고, 유학 관련 정보와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2) 유학생의 입학 허가, 기숙사, 출입국 체계 정비 및 간소화, (3) 영어로만 취득 가능한 학위과정 마련 등 대학의 국제화, (4) 기숙사 지원 등 유학 환경 정비, (5) 졸업 후 취업 지원 및 체류 기간 재검토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⁵⁴⁾.

한편 일본학생지원기구(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이하 JASSO)는 일본 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2004년에 설립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학재단과 국립국제교육원을 합친 것과 같은 대규모 독립행정기관으로 2021년 예산이 1조 2,606억엔에 달한다. 2021년 JASSO 예산 중 외국인 유학생 예산은 144억엔으로, 입학허가·기숙사·언어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생활지원 등 유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유학생의 사후 관리사업까지 실시하고 있다.⁵⁵⁾

52) 김종섭(2010)

53) 김종섭(2010)

54)

<https://www.mext.go.jp/en/policy/education/highered/title02/detail02/sdetail02/1373897.htm>

55) JASSO(2021a)

<표 5.5> 연도별·기관별 외국인 유학생⁵⁶⁾ 현황(1983~2020)

연도	외국인 유학생 수	고등교육기관				
		대학원	학사학위과정 전문대, 기술대	전문학교 ⁵⁷⁾	대학 준비과정	어학연수
1983	10,428	3,905	5,693	830		
1984	12,410	4,590	6,216	1,604		
1985	15,009	5,384	7,201	2,424		
1986	18,631	6,838	8,291	3,502		
1987	22,154	8,035	9,803	4,316		
1988	25,643	9,354	11,246	5,043		
1989	31,251	10,568	13,486	7,197		
1990	41,347	12,383	16,390	12,574		
1991	45,066	13,816	18,710	12,540		
1992	48,561	15,004	21,364	12,193		
1993	52,405	16,592	23,677	12,136		
1994	53,787	17,740	25,009	11,038		
1995	53,847	18,645	25,477	9,725		
1996	52,921	19,779	25,504	7,638		
1997	51,047	19,856	25,052	6,139		
1998	51,298	20,483	25,159	5,656		
1999	55,755	22,679	26,160	6,916		
2000	64,011	23,585	30,612	8,815	999	
2001	78,812	25,146	39,502	12,324	1,840	
2002	95,550	26,229	50,321	17,173	1,827	
2003	109,508	28,542	57,911	21,233	1,822	
2004	117,302	29,514	62,311	23,833	1,644	
2005	121,812	30,278	64,774	25,197	1,563	
2006	117,927	30,910	63,437	21,562	2,018	
2007	118,498	31,592	62,159	22,399	2,348	

56) JASSO의 외국인 학생(international student)의 정의는 외국에서 일본으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을 말하며,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연도	외국인 유학생 수	고등교육기관				
		대학원	학사학위과정 전문대, 기술대	전문학교 ⁵⁷⁾	대학 준비과정	어학연수
2008	123,829	32,666	63,175	25,753	2,235	
2009	132,720	35,405	67,108	27,914	2,293	
2010	141,774	39,097	72,665	27,872	2,140	
2011	163,697	39,749	71,244	25,463	1,619	25,622
2012	161,848	39,641	71,361	25,167	1,587	24,092
2013	168,145	39,567	69,339	24,586	2,027	32,626
2014	184,155	39,979	67,782	29,227	2,197	44,970
2015	208,379	41,396	69,405	38,654	2,607	56,317
2016	239,287	43,478	74,323	50,235	3,086	68,165
2017	267,042	46,373	80,020	58,771	3,220	78,658
2018	298,980	50,184	87,806	67,475	3,436	90,079
2019	312,214	53,089	92,952	78,844	3,518	83,811
2020	279,597	53,056	83,077	79,598	3,052	60,814

출처 : JASSO(2021b)

일본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1983년 10,428명에서 2019년 312,214⁵⁸⁾명으로 37년간 거의 30배 증가하였다. 2019년에 이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국경폐쇄와 온라인 교육 전환으로 유학생 수는 10%가량 감소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의 상당한 부분은 2019년 기준 각각 8만명 내외의 어학연수생(26.8%)과 전문학교(professional training college, 25.3%) 학생 수 증가에 기인한다. 2019년 기준 고등교육 학위과정에 등록된 학생 수는 총 31만명 중 45.7%인 142,691명이다.

57) Professional training college

58) 이 숫자는 학사학위, 석·박사학위 과정외에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대학준비과정, 어학연수 등을 포함하는 숫자로 유네스코 통계와 차이가 있다.

<표 5.6> 고등교육기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2019~2020)

고등교육기관	2019년		2020년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석·박사학위 과정	53,089	17.0%	53,056	19.0%
학사학위과정	89,602	28.7%	79,826	28.6%
전문대	2,844	0.9%	2,828	1.0%
기술대	506	0.2%	423	0.2%
전문학교	78,844	25.3%	79,598	28.5%
대학준비과정	3,518	1.1%	3,052	1.1%
어학연수	83,811	26.8%	60,814	21.8%
합계	312,214	100.0%	279,597	100.0%

출처 : JASSO(2021b)

일본에 오는 유학생은 아시아 출신이 93% 내외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출신국 상위 15개국 중 14위의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시아 지역의 유학생으로, 그 출신국은 중국(39.9%), 베트남(23.5%), 네팔(8.4%), 한국(5.9%), 대만(3.1%) 순이다.

<표 5.7>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대륙별 현황(2019~2020)

대륙	2019년		2020년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아시아	292,317	93.6%	264,420	94.6%
유럽	10,345	3.3%	7,809	2.8%
북미	3,437	1.1%	2,085	0.7%
아프리카	2,247	0.7%	2,070	0.7%
남미	1,718	0.6%	1,550	0.6%

대륙	2019년		2020년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중동	1,367	0.4%	1,192	0.4%
오세아니아	771	0.2%	462	0.2%
기타	12	0%	9	0%
합계	312,214	100%	279,597	100%

출처 : JASSO(2021b)

<표 5.8>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별 현황(2019~2020)

순위	국가	2019년		2020년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1	중국	124,436	39.9%	121,845	43.6%
2	베트남	73,389	23.5%	62,233	22.3%
3	네팔	26,308	8.4%	24,002	8.6%
4	한국	18,338	5.9%	15,785	5.6%
5	대만	9,584	3.1%	7,088	2.5%
6	인도네시아	6,756	2.2%	6,199	2.2%
7	스리랑카	7,240	2.3%	5,238	1.9%
8	미얀마	5,383	1.7%	4,211	1.5%
9	방글라데시	3,527	1.1%	3,098	1.1%
10	몽고	3,396	1.1%	3,075	1.1%
11	태국	3,847	1.2%	3,032	1.1%
12	말레이시아	3,052	1%	2,670	1.0%
13	필리핀	2,852	0.9%	2,221	0.8%
14	미국	3,000	1%	1,752	0.6%
15	인도	1,869	0.6%	1,675	0.6%
기타		19,237	6.2%	15,473	5.5%
합계		312,214	100	279,597	100.0%

출처 : JASSO(2021b)

일본내 유학생의 전공은 인문학이 42.6%이며, 사회과학이 27.1%, 공학이 12.9% 순이다. 유학생의 인문학 편중이 심한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수에 어학연수생(26.8%)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고등교육 학위과정만을 살펴 본다면 인문학 비율은 사회과학보다 적을 것이다.

<표 5.9> 외국인 유학생 전공 현황(2019~2020)

전공	2019년		2020년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인문학	133,061	42.6%	100,887	36.1%
사회과학	84,714	27.1%	81,975	29.3%
자연과학	4,305	1.4%	4,255	1.5%
공학	40,145	12.9%	41,780	14.9%
농학	4,059	1.3%	4,075	1.5%
보건	5,466	1.8%	5,869	2.1%
가정경제학	5,460	1.7%	5,874	2.1%
교육	3,536	1.1%	3,157	1.1%
예술	11,901	3.8%	13,089	4.7%
기타	19,567	6.3%	18,636	6.7%
합계	312,214	100%	279,597	100.00%

출처 : JASSO(2021b)

2.2 유학생 파견 정책 및 현황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국학생 대비 해외로 유학간 자국학생의 비율을 조사한 OECD 통계 결과, OECD 평균은 1.8, 한국은 3.3인데 비해 일본은 0.9로 OECD 평균의 절반정도 수준이다.

유네스코의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 20여년간 해외로 진학하는 일본의 유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1세기 초반에 비해 현재 해외 유학생

의 수는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즉 2005년 64천명이 유학을 간 반면, 2019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32천명만이 유학을 선택했다.

<표 5.10> 일본 유학생 유출 현황(1999~2019)

1999	2005	2011	2015	2016	2017	2018	2019
58,402	64,285	35,922	30,556	31,651	31,739	32,064	32,365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학위과정만이 아니라 어학연수, 문화체험 등으로 유학생의 범위를 확대한 JASSO에 의하면 2019년 해외에서 공부하는 일본 학생 수는 107,000명으로 2011년의 약 두 배이다. 그러나 이중 2/3가 한 달 미만의 단기 체류에 해당한다. 해외로 나가는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감소하였으나,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단기 어학연수, 문화체험, 교환학생 프로그램 유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⁵⁹⁾했으며, 일본 학생의 내향성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유학의 트렌드가 변한 것⁶⁰⁾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달 이내의 단기 문화체험이나 몇 개월의 단기 어학연수로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과 충분한 국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세계화 시대 학위과정 유학생의 감소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일본 젊은이들이 내향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산노경영연구소의 2010년 조사에 의하면 신입사원의 50%가 해외근무 대신 국내근무만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미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1994년~1997년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중 일본 유학생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많았으나 2019년~2020년에는 일본은 8위로 중국, 인도, 한국, 베트남, 대만보다 뒤쳐졌다.

해외 유학 일본인의 감소한 이유에 대해 미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 일본의 가처분 소득 정체, 일본의 고용관습(기업의 신입 공채시즌과 미

59) Horio(2017)

60) Kuroda et al(2018)

국 학기 졸업과의 시차) 등을 들기도 한다⁶¹⁾.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한국도 유사하며, 일본보다 가처분소득과 인구 수가 적은 베트남, 대만이 일본보다 더 많은 유학생을 보낸다는 점에서 유학생 감소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2013년 일본 내각은 일본 부흥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유학생 수를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Tobitate!(Leap for Tomorrow)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기부금으로 200억엔을 모아, 2014~2020년까지 7년간 1만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유학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돕고, 이 학생들이 일본으로 돌아와 해외 경험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유학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⁶²⁾.

2013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0년까지 유학생을 6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고등학생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단기 교류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외 유학생 수는 증가하였으나, 일본 정부가 목표한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61) <https://asia.nikkei.com/Business/Education/Once-No.-1-Japan-topped-by-Vietnam-and-South-Korea-for-study-in-US>

62) <https://tobitate.mext.go.jp/about/english.html>

<표 5.11> 일본 유학생의 유학국 현황

순위	국가	유학생 수	비율
1	미국	14,730	45.5%
2	호주	2,874	8.9%
3	영국	2,684	8.3%
4	독일	1,930	6.0%
5	캐나다	1,698	5.2%
6	한국	1,661	5.1%
7	브라질	1,372	4.2%
8	프랑스	1,161	3.6%
9	헝가리	503	1.6%
10	말레이시아	498	1.5%
11	뉴질랜드	381	1.2%
12	스위스	271	0.8%
13	태국	233	0.7%
14	이탈리아	224	0.7%
15	네덜란드	197	0.6%
	기타	1,948	6.0%
총합계		32,365	100%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3. 한국의 유학정책 및 현황

한국의 근대적인 첫 유학은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의한 개항 이후 1879년 김윤식이 인솔하는 영선사 38명을 중국에 들어온 서구 과학기술과 군사기술 등을 배우기 위해 북경, 텐진 등에 파견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뒤 1882년의 한미수호조약 등 미국, 프랑스, 영국과의 조약에서도 유학생 교류를 약정하게 되었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 유학이 급속히 확대되어 갔다.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구미 유학은 거의 동결되었으며, 일제강점기하에는 일본 유학이 증가되었다.

해방 및 정부수립 이후 1951년 국방부가 주최하여 육군장교단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으며, 1952년 『민주신보』 보도에 따르면 매년 100명씩 파견하던 유학생을 300명으로 증원할 것과, 유학 행선지도 미국뿐 아니라 유럽 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중국 등으로 범위를 넓힐 것을 정부 부처간에 협의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파견할 때 자연계 70%, 인문계 30%로 조정할 것과 선발의 공정성 및 출국 수속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부처간의 책임 분담을 뚜렷이 하였다⁶³⁾.

1957년 제정된 ‘해외유학생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부파견 연구원을 제외하고, 해외에 유학하기 위해서는 자격전형⁶⁴⁾에 합격하고 문교부장관의 유학인정을 받아야 한다. 해외유학생 자격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인문과학 전공자는 대학졸업자 이상, 자연과학 전공자는 자연과학계 대학 2년 수료자 이상의 자격이 요구된다. 법령상으로 인문계보다는 자연과학계의 유학이 더 수월했으며, 실제 유학인정에 있어서도 자연계 대 인문계 비율은 7:3으로 조절되었다.

1979년에는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해외 유학정책을 일부 완화하였다. 동 규정에서는 자비유학과 국비유학을 구분하였다. 자비유학의 경우에도 여전히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나 그 조건은 크게 완화되었다. 예를 들어 시험응시자격이 더 확대되었고, 대학성적이 우수하거나 다른

63) 한국학중앙연구원(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유학(留學))

64) 국민교양(국사), 전공과목, 외국어(국역, 작문, 청취, 요약) 등에 대한 시험이다.

일정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이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되었다.

그동안 해외유학이 자비유학이나 풀브라이트 장학금 등 해외 장학금에 의존하던데 반해, 1977년에는 국비유학제도가 도입되어 매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의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유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비유학생은 귀국 후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유학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복무할 의무를 지녔다⁶⁵⁾.

1981년부터 자비유학의 자격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자, 고등학교 졸업자 중 졸업석차가 상위 20% 이내 해당자, 예체능 중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자로 우수 실력 보유자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다⁶⁶⁾. 1983년부터는 유학자격심사위원회를 문교부에서 특별시·직할시·도 교육위원회로 이관하였다⁶⁷⁾. 1994년에는 자비유학을 위한 외국어시험이 폐지되었다⁶⁸⁾.

한편 문화협정 또는 양자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장학생에 대한 초청사업도 추진되어, 1967년부터 1980년까지 14년 동안 1,996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 역시 시작 1960년 시작 당시에는 미국정부의 장학금으로 우리 유학생이 미국에 유학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1972년부터 한국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면서 미국 학생과 학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사업이 같이 추진되었다.

초기의 유학정책은 외화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한계 속에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발전의 동력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우리 유학생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둔 규제 중심의 행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야 유학정책은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65) 해외유학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9625호, 1979. 9. 21., 제정] 제27조 복무의무

66) 해외유학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0438호, 1981. 8. 5., 전부개정]

67)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263호, 1983. 11. 22., 전부개정] 제6조 유학자격심사위원회

68)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338호, 1994. 7. 23., 일부개정]

3.1 유학생 유치정책 및 유학생 현황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 6,160명에 불과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2003년까지 1만2천명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당시 해외로 나가는 한국 유학생은 15만명에 달하지만,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6천여명에 불과해 유학수지 적자 규모가 8억달러에 달하고 있었다. 동 방안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절차 간소화, 유학생의 국내 취업제한 일부 완화,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유학 박람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원)에 유학생을 위한 영어전용강좌 개설을 확대하도록 2003년부터 3년간 30개 강좌에 대해 국고 3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외국인 유학생 수는 12,314명, 2004년 16,832명으로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5.12>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 외국인 유학생 현황(1993~2000)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1,908	1,879	1,983	2,143	4,753	5,326	6,279	6,160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11)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교육수출의 경쟁력 제고, 유학 수지적자 구조의 개선, 해외 우수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고등교육체제 개선이라는 목표로 마련된 종합방안으로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었다.

동 방안에는 대학의 외국어 전용 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를 신·증축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외공관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학생의 유치 업무를 활성화하고,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 한국문화 체험행사 마련, 한국유학 안내 사이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호주 등의 초·중

등학교 한국어반 설치 및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확대하고, 정부-대학-기업이 긴밀히 연계해 기업은 외국인력 수요치를 제시하고, 초청 장학생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고 졸업 후 채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2010년 유학생 수는 83,842명으로 당초 목표했던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2011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인증제(IEQAS)'를 도입하였다. 당시 외국인 유학생은 89,537명으로 9만명에 육박하는 등 2005년에 비해 4배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질 관리가 미흡하여 한국대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연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을 신청한 대학에 대한 1차 서면평가(8개 지표 정량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을 하고,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⁶⁹⁾ 등 유학생 대상 재정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해외 대학 유학박람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평가결과 하위권대학에 대해서는 부실 정도에 따라 컨설팅, 시정명령,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예고하였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2020년까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20만명 유치하기 위한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2013~2020년)'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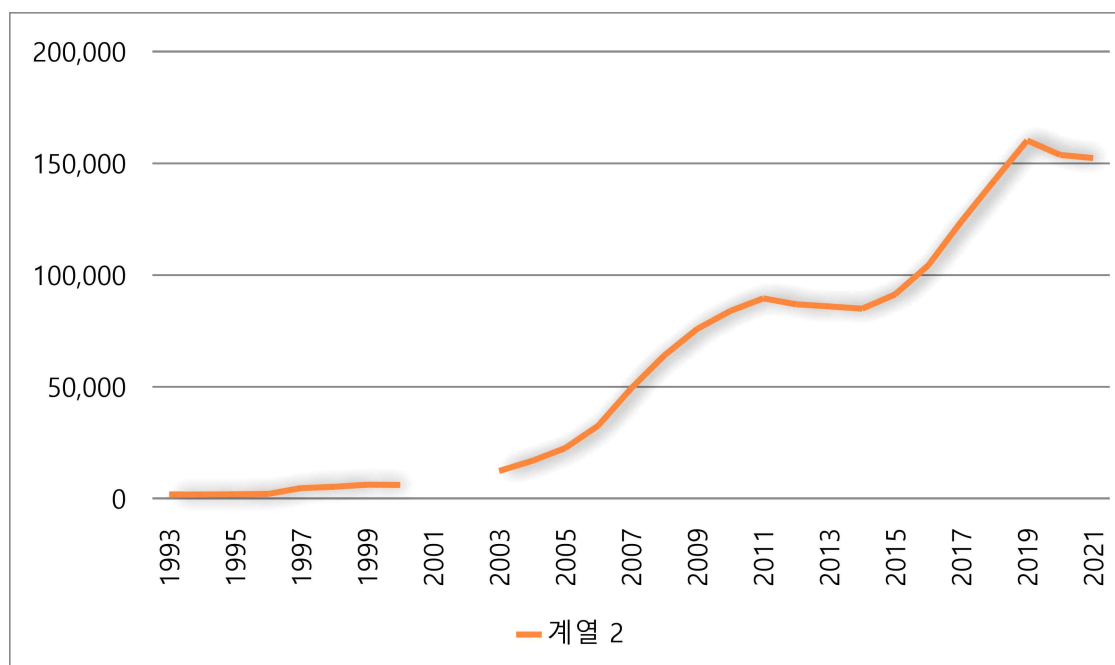
2단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는 1기와 유사한 유학 홍보 및 유학생 지원방안과 함께 외국인 학부장학생 지원사업(GKS) 규모를 2015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정부초청장학생 신규선발 인원을 1000명으로 확대해 미국 폴브라이트와 같은 한국의 대표 장학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담고 있다. 또 법무부 비자 시스템과 연계에 유학생의 입학 및 입국부터 졸업 후 출국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한국유학

69) 세계 우수 인재의 초청을 통해 국제적 친한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초청 대상국 학생에게 국내 학부과정(학사 및 전문학사)과 대학원과정(석사 및 박사) 수학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외 우수 자비유학생과 교환학생에 대한 장학금 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http://www.niied.go.kr/user/nd63626.do>

종합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이 시스템에서 각 대학의 전공, 교원, 기숙사, 한국어연수프로그램,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림 5.1> 외국인 유학생 유입 추이(1993~2021)



※ 2001~2002년 데이터 없음

출처 : 교육부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3년부터 대폭 증가하였고, 2012~2014년 유학생 수가 정체되는 구간도 있었으나 2015년 이후 다시 빠르게 성장하였다. 2019년 유학생 수는 정점을 찍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폐쇄와 해외 이동성 제한으로 유학생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2015년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하여 유학생 20만명 유치 목표 기한을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하고 유학생 저변 확대, 출신국 다변화 및 한국유학 매력도 제고의 3대 전략을 바탕으로,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우수 지방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 유학생 유치지원 및 기반 구축의 3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5.13>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 외국인 유학생 현황(1993~2021)⁷⁰⁾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3년
1,908	1,879	1,983	2,143	4,753	5,326	6,279	6,160	12,314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5,923	84,891	91,332	104,262	123,858	142,205	160,165	153,695	152,281

출처 : 교육부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대륙을 보면, 아시아 지역이 91%로 압도적으로 많다. 세계적으로 동일 대륙간의 유학생 이동이 활발한 경향이 있지만 아시아 대륙에서 특히 이러한 경향이 더 큰데, 한·중·일 모두 아시아 출신 비중이 절대다수이다.

<표 5.14> 외국인 유학생 출신 대륙 현황(2021)

지 역	학위과정 ⁷¹⁾	어학연수	기타연수	합계	비율
남아메리카	572	207	172	951	0.6%
북아메리카	1,908	584	548	3,040	2.0%
아시아	113,274	20,695	4,374	138,343	90.8%
아프리카	2,180	271	84	2,535	1.7%
오세아니아	204	43	8	255	0.2%
유럽	1,880	1,642	3,635	7,157	4.7%
합계	120,018	23,442	8,821	152,281	100%

출처 : 교육부

70) '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조사되었고, '04년도부터는 여기에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되었다. 또한 어학연수생, 기타 연수생 포함이 되는데, 2021년 어학연수는 23,442명, 기타연수는 8,821명 수준이다.

71) 전문대학 포함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44% 내외로 1위이며, 베트남 23%, 우즈벡 5%, 몽골 4%, 일본 2.5%, 미국 1.5% 순이다.

<표 5.15>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별 현황(2019~2021)

국 가	2019	비율(%)	2020	비율(%)	2021	비율(%)
중국	71,067	44.4%	67,030	43.6%	67,348	44.2%
베트남	37,426	23.4%	38,337	24.9%	35,843	23.5%
우즈벡	7,492	4.7%	9,104	5.9%	8,242	5.4%
몽골	7,381	4.6%	6,842	4.5%	6,028	4.0%
일본	4,392	2.7%	3,174	2.1%	3,818	2.5%
미국	2,915	1.8%	1,827	1.2%	2,218	1.5%
기타	29,492	18.4%	27,381	17.8%	28,784	18.9%
계	160,165	100.0%	153,695	100.0%	152,281	100.0%

출처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자비유학(91%)이며, 정부 초청 장학생이 2% 내외, 대학 초청 장학생이 4% 내외이다.

<표 5.16>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형태별 현황(2019~2021)

유 학 형 태	2019년		2020년		2021년	
	유학생수	비율	유학생수	비율	유학생수	비율
자비 유학생	146,247	91.3%	141,397	92.0%	139,161	91.4%
정부초청 장학생	2,943	1.8%	2,971	1.9%	3,262	2.1%
대학초청 장학생	8,147	5.1%	6,390	4.2%	6,291	4.1%
자국정부 파견장학생	548	0.3%	323	0.2%	258	0.2%
기타	2,280	1.4%	2,614	1.7%	3,309	2.2%
합 계	160,165	100.0%	153,695	100.0%	152,281	100.0%

출처 : 교육부

유학생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67%로 가장 많으며, 공학계열 13%, 예체능 계열 12% 순이다.

<표 5.17>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현황(2021)

지 역	인문사회	공학계	자연과학	예체능	의학	계
대학(전문대)	57,190	9,778	4,581	8,970	78	80,597
석사과정	18,233	2,795	1,251	2,680	210	25,169
박사과정	5,501	3,354	1,612	3,400	385	14,252
합계	80,924	15,927	7,444	15,050	673	120,018
비율	67.4%	13.3%	6.2%	12.5%	0.6%	100.0%

※ 어학연수생 23,442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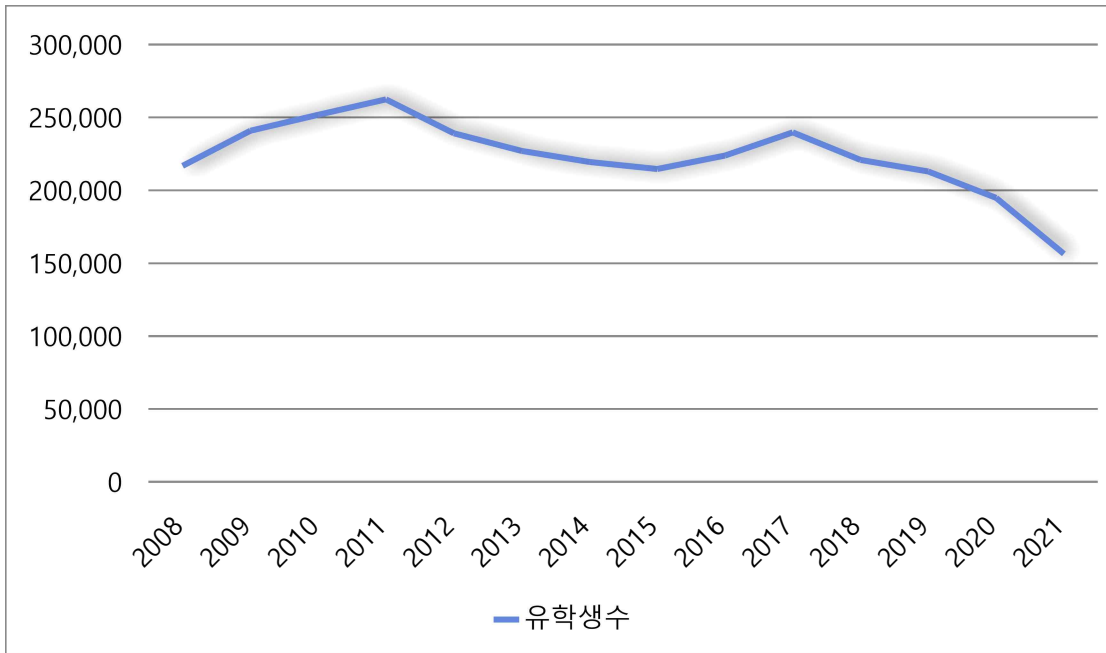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

3.2 유학생 파견정책 및 유학생 현황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 수립이후 유학정책은 국비유학 위주의 유학생 파견정책과 자비유학에 대한 질관리 정책 위주였다. 국비 유학은 1977년 12명의 유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50~100명 내외를 선발하여 지원하였고, 1989년 역대 최대 규모인 117명을 선발하였으나 그 수는 감소하여 현재는 50~60명 내외이다. 국비유학은 학위과정 위주의 일반전형 외에 2009년 저소득층 전형, 2013년 기술기능인 전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가는 한국 유학생의 절대 다수는 사비유학의 형태이다. 빠른 경제성장과 교육열이 높은 중산층의 증가로 유학생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해외에서 수학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2011년 262,465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19년은 213,00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20~2021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유학생 이동 감소와 맞물린 것으로 장기적인 추세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림 5.2> 국외 한국인 유학생 추이(2008~2021)



출처 : 교육부

<표 5.18> 국외 한국인 유학생 추이⁷²⁾(2008~2021)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16,867	240,949	251,887	262,465	239,213	227,126	219,543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4,696	223,908	239,824	220,930	213,000	194,916	156,520

출처 : 교육부

해외에서 수학하는 한국 유학생은 북미지역(39.7%)에 가장 많이 유학을 가며, 그 다음은 아시아(32.9%), 유럽(16.2%), 오세아니아(10.7%) 순이다. 일본과는 다르게 어학연수 및 기타연수보다는 대학(원) 등 학위과정 유학비율(65.7%)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2) 해당국 재외공관에서 관할국가 한국인 유학생 조사

<표 5.19> 국외 한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별·대륙별 현황(2021)

지역	학위과정			어학연수 기타연수	합계	비율
	대학	대학원	소계			
아시아	30,600	5,127	35,727	15,735	51,462	32.9%
북미	33,566	15,446	49,012	13,068	62,080	39.7%
유럽	9,836	8,725	18,561	6,732	25,293	16.2%
오세아니아	2,223	1	2,224	14,511	16,735	10.7%
아프리카	11	6	17	504	521	0.3%
중남미	77	39	116	313	429	0.3%
합계	76,313	29,344	105,657	50,863	156,520	100.0%

출처 : 교육부

유학 목적국 현황은 <표 5.20>과 같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25.6%), 중국(23.8%), 호주(8.8%), 일본(8%), 캐나다(7.7%) 순으로 유학을 많이 선택하였다. 2021년에는 유학국의 순위와 비중이 조금 달라졌다. 이는 대체로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폐쇄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진 나라로의 유학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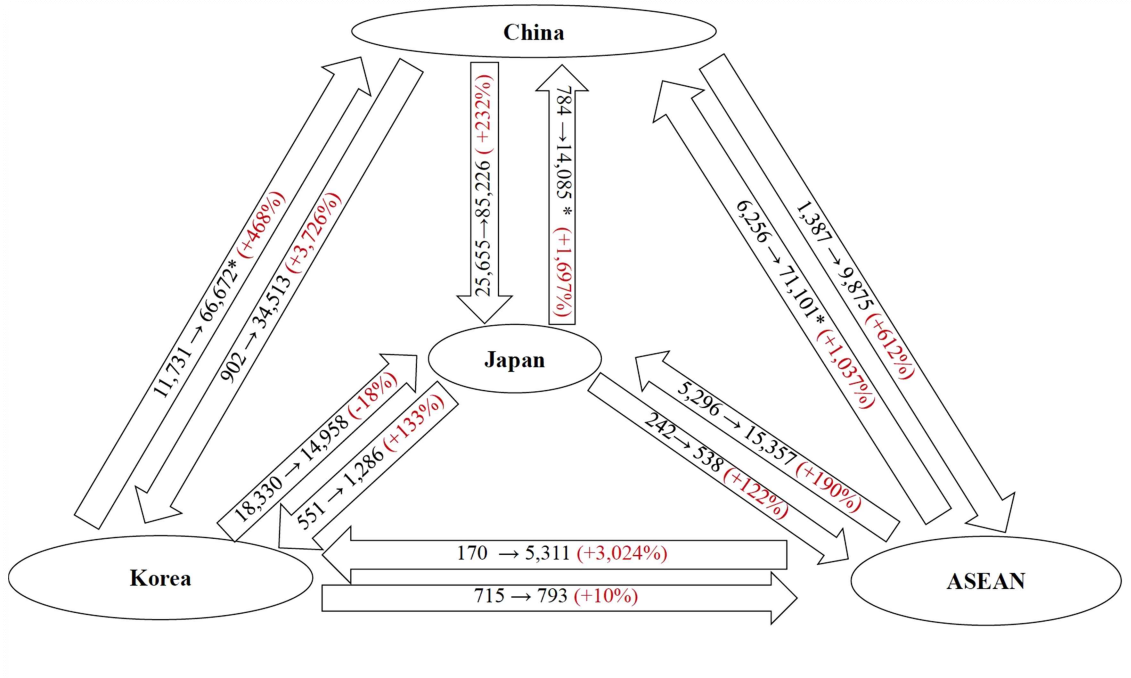
<표 5.20> 국외 한국인 유학생의 국가별 현황(2019~2021)

연도	2019	비율(%)	2020	비율(%)	2021	비율(%)
미국	54,555	25.6%	52,250	26.8%	49,809	31.8%
중국	50,600	23.8%	47,146	24.2%	26,949	17.2%
호주	18,766	8.8%	13,026	6.7%	13,726	8.8%
일본	17,012	8.0%	18,338	9.4%	15,785	10.1%
캐나다	16,495	7.7%	16,325	8.4%	12,220	7.8%
독일	6,835	3.2%	7,066	3.6%	7,444	4.8%
프랑스	6,948	3.3%	7,090	3.6%	4,024	2.6%
기타	41,789	19.6%	33,675	17.3%	26,563	17.0%
계	213,000	100.0%	194,916	100.0%	156,520	100.0%

출처 : 교육부

4. 유학생 이동성 확대를 위한 지역적 협력

<그림 5.3> 한·중·일과 아세안국가간 유학생 이동(1999~2015)⁷³⁾



출처 : Kuroda et al(2018)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지역이면서, 또한 지역내 유학생 이동성도 활발한 지역이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한·중·일과 아세안국가간 유학생 이동성을 분석하면 <그림 5.3>과 같다.

앞의 제4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유학 목적지인 미국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유학생의 이동은 같은 대륙내의 이동성이 더 큰 경향이 있다. 유학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지역내 국가들이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더 밀접히 연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학의 가장 큰 동인이 미래의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있다는 점에서 자국과 경제적 관계가 큰 나라로의

73) 한국, 일본, 아세안의 유학생 통계는 유네스코 통계로 학위과정 유학생만을 나타내며, 중국의 통계는 '중국교육통계연감'이 출처로 비학위과정 유학생을 포함하고 있다.

유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림 5.3>을 보면 1999년~2015년사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 수는 준 반면에, 중국과의 유학생 교류가 크게 늘고, 아세안 국가에서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90년대말부터 아시아 지역에 불기 시작한 한국문화 열풍을 포함하여 상호간의 문화적 교류의 증대는 유학 목적국으로서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켰다. 박준용 등(2020)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한류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한국과의 총 무역량,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R&D 지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문화적 동인 외에 이러한 역내 학생 이동성을 증진의 요소 중 하나로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들 수 있다.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09.10.10)에서 대학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인적자원과 교육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뒤,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10.5.30)에서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⁷⁴⁾ 시범사업을 신규 협력 사업으로 채택하여, 학점인정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통한 3국 대학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 캠퍼스아시아 시범사업이 공고되어 3국이 공동으로 10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12년부터 각국별로 연간 100명, 총 300명의 학생교류를 매년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학의 교류프로젝트에 따라, 참여 학생들은 한·중·일 3국 대학에서 학점 상호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복수 학위 취득도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서울대(국제대학원)-북경대(국제관계학원)-동경대(공공정책대학원)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BESETO 국제학 및 공공정책학 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각 대학에서 1년씩 수학하고 최대 3개의 석사학위를 졸업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2012~2015년까지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복수학위 취득(예정)자 163명을 포함해 총 1,900여명의 학생 교류가 이루어졌다⁷⁵⁾.

74)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의 약자로, 유럽의 학생 교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기획되었다.

75) 교육부(2016)

<표 5.21> 캠퍼스 아시아 한·중·일 학생교류 현황(2012~2015)

구분	복수학위		교환교류		단기교류		계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일본	
파견학생	32(9)	61(29)	146(44)	95(7)	200(69)	465(100)	999(258)
초청학생	39(9)	31(12)	151(36)	130(19)	204(63)	357(94)	912(233)
총계	71(18)	92(41)	297(80)	225(26)	404(132)	822(194)	1911(491)

※ ()는 전체 인원 중 프로그램 3국 순회학생

출처 : 교육부

2015년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2016년 제1차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에서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2016년 10월 교육부는 중국 교육부 및 일본 문부과학성과 함께 캠퍼스아시아 본 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사업단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한·중·일 3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기존 8개 시범사업단과 더불어 총 17개 사업단의 학생 교류를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2009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정부(M-I-T)는 동남아교육 장관기구 고등교육개발센터(SEAMEO RIHED⁷⁶)와 협력하여 고등교육 분야 학생 이동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곧 모든 SEAMEO 회원국간의 학생 이동 프로그램인 에임즈(AIMS) 프로그램⁷⁷으로 확대되었다. 에임즈 프로그램은 농업, 인문학, 국제통상, 식품과학, 공학 등의 10개 학문 분야에서 학부생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류기간은 1학기(최대 2학기)이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과 에임즈 프로그램을 연계하려는 노력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ASEAN+3 학생 교류 가이드라인' 개발이 시작되었고, 한국 교육부는 2015년 에임즈 참여를 희망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에임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2020년 12월 기준, 에임즈 사업에는 아세안+3 권역의 총 9개 국가⁷⁸의 78

76) South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Organization (SEAMEO) Regional Centre specialising in Higher Education and Development (RIHED)

77) ASI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AIMS) programme

78)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 5천여명이 교류하였다.

<표 5.22> 한-아세안 학생 교류 현황(2016~2020)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합계
파견학생	128	100	65	46	10	1	350
초청학생	180	70	60	25	30	11	376
합계	308	170	125	71	40	12	726

출처 : 교육부

캠퍼스 아시아-에임즈 사업을 통해 사업이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2020년까지 총 726명의 학생 교류를 지원하였다. 아세안은 인구 규모로는 세계 3위, GDP 규모 세계 6위로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상대이며 갈수록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지역은 아직 젊은 인구가 많은 역동적인 사회로,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증가로 교육열은 높으나 자국내 양질의 고등교육기관이 적어 유학 수요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유학생 송출국으로 급 부상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아세안 학생들의 한국 유학 생활과 한국문화 체험을 지원하여 아세안 지역 내 친한·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세안 지역은 한국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학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다. 이러한 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아세안에 대한 국내 학생의 관심을 제고하고 아세안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정책 제언

각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을 보면 유학 홍보, 장학금 지원, 비자 및 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행정지원, 기숙사 등 정주여건 및 생활 지원 등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학생 유치 정책만으로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국으로 유학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유학생 유치정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유학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첫 번째 요소는 유학 후 높은 보수를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학 목적국의 경제적 위상과 자국과의 관계, 전공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해당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먼저 고려할 것이다.

두 번째는 다수의 학생은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유창히 구사하고자 하는 열망과 서구권 문화에 대한 호감이 많아 유학 대상국으로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영어권 국가를 더 선호한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이들 영어권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유학 비용, 유학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지와 유학국의 거주 환경 등이 고려될 것이다. 이 부분이 유학생 유치 정책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학 결정 우선 순위 면에서는 그 중요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기존의 유학정책은 이 부분에 주로 집중하여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정보 제공, 각종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유학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기존의 유학정책만으로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기존의 유학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범정부적으로 이민정책과 유학정책을 연계하여 설계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 후 한국 내에서 또는 자국에 진출한 한국의 다국적 기업 취업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으로 향후 수십년 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한국을 잘 이해하는 고급 외국인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으로 유학생 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고등교육 기관

의 질적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학생 유치의 양적 목표에 집착하기 보다는 유학생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두 번째 요소는 국가의 정책으로는 변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그러나 최근 한류의 확산과 지속적인 유행으로 국제적으로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대폭 상승하였다.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지속적인 유학생 유입외에도 기타 교류가 적었던 대륙으로부터의 유학생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에서의 유학생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 학위과정과 학점의 이해 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네스코 협약 등 국제사회의 학생 이동성 증진 프로그램과 아세안+3 등 다자간 교류협력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의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태지역 협약을 2017년 비준하고, 관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은 아태지역 협약과 달리 더 넓은 범위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고등교육 자격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협약이 형식학습 외 비형식·무형식 학습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한 데 비해, 한국은 비형식 교육에 대한 인정 절차나 사례도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으며, 무형식 교육까지 인정의 영역으로 포괄하기에는 아직 여러 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 선행학습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선행학습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표준화된 절차 마련이 필요하며, 글로벌 협약에서 도입한 부분인정제도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문서로 입증할 자격요건이 없는 난민 등을 위한 자격 인정 평가 프로세스의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학생의 이동성 측면에서 그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럽 학점 교류시스템(ECTS)과 같이 학습성과(learning outcomes)와 학습량(workload)을 고려한 표준적인 학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유럽과 한국의 학점과 학습량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고려해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학점체계의 개편이나 표준적인 보조자료의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실질적인 학생 이동성을 지원하는 캠퍼스 아시아와 에임즈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내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확대·지속해야 한다. 한·중·일간 학생교류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중, 한-일, 중-일간 영토 분쟁, 정치적 갈등 등 경색구간이 있었으며, 일시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시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미래 세대의 교류를 증진하기 보다는 미래 세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젊은 인구가 많고 역동적인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성장성에 주목해야 한다. 제3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베트남은 중국, 인도 다음으로 많은 유학생을 배출한 나라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수의 유학생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 네팔의 인구는 3천만명 내외이지만 자국에 석·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1%에 불과해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은 유학생을 해외로 보내고 있으며 그 수는 지난 5년간 132%나 증가했다. 그 외 현재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세계 유학생의 절반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으로 우리와 경제적 관련이 점차 밀접해지고 있는 이들 국가와의 다양한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유학을 홍보하고 유학생을 유치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유학생 순유출국으로 유학 수지 적자국이였다. 그러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학생 수의 증가, 해외로 나가는 우리 유학생 수의 감소로 순유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현재 2천여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개인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낯선 해외로 나가 배우고자 하는 유학생의 유출을 단순히 비용적 측면 따져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일본과 같이 젊은이의 도전정신이 약해지고 해외 진출을 꺼리고 국내에 안주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학생교류 프로그램은 다양한 나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9.22)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본격 시행
- 교육과학기술부(2011). 「아시아 대학생 교류 및 대학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CAMPUS Asia 시범사업 추진계획」
- 교육부(2016).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추진계획」
- 교육부(2019). 「2019년 CAMPUS Asia-AIMS 사업 추진계획」
- 교육부(2019).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고시
- 교육부(2021). 「CAMPUS Asia-AIMS 사업2주기 ('21~'25) 기본계획」
- 교육부(2021). 「2021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교육부, 고용노동부(2013).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기본계획(2013~2017)」
- 교육부, 고용노동부(2013).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기본틀 설계 시안 공청회 자료
- 구자익(2014).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보림(2014). 메이지(明治) 유신기 일본의 유학생 파견 연구. 「전북사학」 p275~299.
- 김윤희, 김선주(2020). 한일중 캠퍼스아시아 사례를 통한 3국의 고등교육 교류협력 분석과 지역화 탐색. 「글로벌교육연구」 2020, 제12집 3호, p.3-42
- 김중섭(2010).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 전략 방안.
- 김한나, 우한솔, 이승호(2016).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4), 2016.12, p311-337.
- 마이클 김(2010). APEC 지역 내 학생 이동: 지역주의와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전망. 「다문화사회연구」 3(1), 2010.2, p101-126

- 민귀식(2014).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 박준용, 김보경, 김보영(2020). 한류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7권 제3호 2020년 06월 pp.38~64
- 변기용, 이희영(2018). ASEAN+3 국가 간 고등교육 협력 발전 동향 분석 : 다자간 학생 이동 프로그램과 질 보장 이슈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육연구」 2018, 제10집 3호, p.27-60
- 안인해(2009). 중국 해외유학의 전개과정과 국가정책. 「중국학논총」 제 25집
- 이은화(2015). 한·중 양국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발전과 주요 제도 비교 연구. 「중국학」 p161~184.
- 이정표(2019). 유럽 고등교육자격 인정 정책 동향 분석과 시사. 「유럽연구」
- 이진희(2014). 유럽통합과 독일 대학교육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독일어문학」 제69집
- 한국학중앙연구원(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승희(2005). 「평생교육론: 평생학습 사회의 교육학」. 학지사

<해 외 문 헌>

Ahmad Ahmad, Mahsood Shah(2018). *International students' choice to study in China: an exploratory study*

Andrijana Bogdanovska Gj(2018). Trends in International Mobility of Students 2000-2016 (EU, UK and the US). Center for Knowledge Management

Andrijana Bogdanovska Gj. et al.(2018). *Trends in International Mobility of Students 2000-2016 (EU, UK and the US)*

Australian Government(2020). *Australian Strategy for International Education 2021-2030*

Belt and Road Portal. <https://eng.yidaiyilu.gov.cn/>

ChinaPower Project(2020). Is China Both a Source and Hub for International Students.

Cristina López-Duarte, Jane F. Maley & Marta M. Vidal-Suárez(2021). *Main challenges to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in the European arena*. Scientometrics volume 126, pages8957 - 8980 (2021)

Dasha Karzunina, Josie West, Jack Moran & Georgia Philippou(2017). *Student Mobility & Demographic Changes*. QS.

David Crosier & Teodora Parveva(2013). The Bologna Process: Its impact on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in Europe and beyond. UNESCO.

David Crosier, Teodora Parveva(2013). *The Bologna Process: Its Impact on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in Europe and Beyond*

Diem Anh Le(2020). *Beyond China: the next Asian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countries*.

Emmanuel Tetteh Teye(2019). *The Life Experience and Satisfaction of Foreign Students in Eastern China: A Case of Anhui Province*. *Journal of Social Science Studies*. 2019, Vol. 6, No. 2

ENQA et al.(2015).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ESG)

Eurostat(2002). *Labour Force Survey 2003 ad hoc module on lifelong learning*

Hang Gao & Hans de Wit(2017). *China and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Number 90: Summer 2017.

Horio, T.(2017). *Japanese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Global Citizenship Development*.

ICEF Monitor(2015). The factors driving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to and from Turkey.

JASSO(2020). *Result of an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2019*.

JASSO(2021a). *JASSO Outline 2021-2022*.

JASSO(2021b). *Result of an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2020*.

JASSO(2021c). *Scholarship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2021~2022*.

Kazuo Kuroda, Yuto Kitamura, Miki Sugimura & Sarah Renee Asada(2018).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Student Mobility in Japan and Asia*

Mabel Sánchez Barrioluengo & Sara Flisi(2017). *Student mobility in tertiary education: institutional factors and regional attractivenes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Martina Kroher et al.(2021). *Did the Bologna Process Achieve Its Goals? 20 Years of Empirical Evidence on Student Enrolment, Study Success and Labour Market Outcomes*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9). Statistical report on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for 201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C.(2018) *China's Foreign Affairs (2012-2017)*.

Nancy Show(2021). *Student Mobility and Its Relevance to Internatioal*

Relations Theory.

Ning Luo(2017). *Japan, Malaysia, Taiwan, and South Korea Remap Regional Student Flows.* World Education News and Reviews.

OECD(2005). *Education at at Glance OECD Indicators 2005*

OECD(2005). *Promoting Adult Learning Recognition of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OECD Home)

OECD(2010).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Outcomes, Policies and Practices*

OECD(2010). *Recognition of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Pointers for policy development*

OECD(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Peter Agyeman Biney, Mei-Ying Cheng(2021). *International Students' Decision to Study in China: A Study of Some Selected International Students from Universities in China.* Open Journal of Social Sciences, 2021, 9, 305-325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2015). *ECTS Users' Guide 2015*

Rahul Choudaha & Hans de Wit(2019). *Finding a sustainable future for student mobility.* University World News.

Rahul Choudaha & Li Chang(2012) *Trends in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World Education News & Reviews

Rahul Choudaha. (2017). *Three waves of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1999 - 2020).*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2. 1-8.

Rajika Bhandari, Chelsea Robles, & Christine Farrugia(2018).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shifting mobilities, policy challenges, and new initiatives*, UNESCO.

Recognition of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OECD Home)

Sanchez Barrioluengo, M. and Flisi, S.(2017), *Student mobility in*

tertiary education: institutional factors and regional attractiveness

Sorbonne Joint Declaration(1998)

Teichler, U. (2012). *International mobility and the Bologna process*. Research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7(1), 34-49.

The Bologna Declaration(1999)

The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IS). <http://uis.unesco.org/>

U. Teichler(2007). *The Changing Role of Student Mobility*. UNESCO Forum.

UNESCO(2018), "*Consultation with Member States on the Preliminary Draft of the 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UNESCO Office Bangkok and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2013). *The International mobility of students in Asia and the Pacific*

UNESCO UIS(2021). *Background Information on Education Statistics in the UIS Database*

UNESCO(2011).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UNESCO(2019). *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UNESCO(2020). *Qualifications Passport for Refugees and Vulnerable Migrants: Information Notes*

UNESCO, Council of Europe(1997)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UNESCO, OECD(2005). *Guidelines for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UNESCO-UIS(2014). *Higher Education in Asia: Expanding Out, Expanding Up*.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NESCO-UIS/OECD(2005). *EDUCATION TRENDS IN PERSPECTIVE*

Wen Wen(2018). *Inbound international student policies in China: a historical perspective*. Asian Educ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Vol. 7 Issue: 2, pp.174-183

Xinhua Silk Road Information Service(2020), *Education Action Plan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Xinhua Silk Road Information Service(2020). *Education Action Plan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Yuzhuo Cai(2020). *China's 2020 target: reshaping global mobility flows*.

<웹 페이지>

http://en.moe.gov.cn/documents/reports/201904/t20190418_378692.html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1949>

<http://ico.ipb.ac.id/aims/>

<http://www.cafsa.org.cn/research/show-1662.html>

http://www.gov.cn/jrzq/2008-03/13/content_919387.htm

http://www.moe.gov.cn/jyb_xwfb/gzdt_gzdt/s5987/201303/t20130307_148379.html

http://www.moe.gov.cn/jyb_xwfb/xw_fbh/moe_2069/xwfbh_2017n/xwfb_170301/170301_sjtj/201703/t20170301_297677.html

http://www.moe.gov.cn/srcsite/A20/moe_850/200702/t20070206_77799.html

<https://asia.nikkei.com/Business/Education/Once-No.-1-Japan-topped-by-Vietnam-and-South-Korea-for-study-in-US>

<https://chinapower.csis.org/china-international-students/>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A7YDhF9T3OOjQGuB-I85EfrIGf3rPeR3_JKex_vCHu0/edit#gid=0

<https://en.imsilkroad.com/p/314241.html>

<https://en.imsilkroad.com/p/314241.html>

<https://monitor.icef.com/2015/04/the-factors-driving-international-student-mobility-to-and-from-turkey/>

<https://studyportals.com/blog/beyond-china-the-next-asian-international-student-recruitment-countries/>

<https://tobitate.mext.go.jp/about/english.html>

<https://wenr.wes.org/2017/08/global-mobility-japan-malaysia-taiwan-and-south-korea-look-to-shift-student-mobility-by-2025>

<https://www.eaie.org/blog/china-2020-target-reshaping-global-mobility-flows.html>

<https://www.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recognition-of-non-formal-and-informal-learning-home.htm>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190205110138464>